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기본연구

2013-23

서유정
이지은
김수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보안등급 | 일반과제

기본연구

2013-23

서유정
이지은
김수진

머 리 말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고, 교내에 진로상담실, 더 나아가 커리어존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 학년의 확대를 통해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시수도 확보되었다. 학교 현장 차원의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이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진행에 따른 향후 진로교육성과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학교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정의와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 단계에서 가능한 질적·양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양적 자료로는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질적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타교과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이지은 연구원과 김수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남수현 위촉연구원은 자료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보고서는 1장과 2장은 서유정, 3장은 이지은·서유정, 4장은 김수진·서유정, 5장은 서유정·김수진이 집필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고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진로교육성과의 양적·질적 개선과, 이를 통한 학교교육성과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과 진로교육정책의 개선 방향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과제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힌다.

2013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용어의 정리	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4

제2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_15

제1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논의	17
제2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 선정	20
제3절 진로교육 정책 변화 추이	27
제4절 소 결	43

제3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양적 분석_45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47
제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58
제3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68
제4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74
제5절 소 결	82

제4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질적 분석_87

제1절 연구 개요 89

제2절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별 비교 및 중점교/
비중점교 분석: 진로진학상담교사 92

제3절 학교 유형별 분석: 타교과교사 및 학생 101

제4절 소 결 111

제5장 논의 및 제언_115

제1절 분석 결과 논의 117

제2절 제 언 118

SUMMARY_127

참고문헌_131

부 록_139

1.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교육성과 분석 141

2. 진로교육성과 시계열 분석(부표) 144

3. 면담지: 진로진학상담교사, 타교과교사, 학생 145

4. 기타 질적 분석 161

표 차례

<표 1-1>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구분	6
<표 1-2>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지표(예시)	8
<표 2-1> 2011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결과	21
<표 2-2> 2012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결과	22
<표 2-3> 진로교육성과 평가 선행 연구와 활용 지표	23
<표 2-4> 학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종합적 학교지표 체계	25
<표 2-5> 학교교육성과 평가 활용 지표	27
<표 2-6> 2011년 이전과 이후의 정책 변화 추이	28
<표 2-7> 2011년 이후 진로교육 정책 주요 추진 과제	29
<표 2-8> 진로진학상담교사 시·도별 배치 현황(2011~2013)	31
<표 2-9> 2013년도 교장·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종류 및 인원 ..	34
<표 2-10> 2012년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인원	38
<표 2-11> 시·도별 2012년 체험처 발굴 현황	39
<표 2-12> 2012년 진로캠프 유형별 참여 인원	41
<표 2-13>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43
<표 3-1> 양적 분석 개요	48
<표 3-2> 양적 분석 방법	49
<표 3-3> 양적 분석에 활용한 지표와 문항	50
<표 3-4> 진로교육성과 및 지표 조사 체계	52
<표 3-5> 진로교육성과와 교육환경 지표 및 해당 문항	53

<표 3-6> 교육성과 및 교육환경 지표와 학교알리미 문항	55
<표 3-7> 진로성숙도 검사 지표	56
<표 3-8>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대상	59
<표 3-9> 중학교 진로상담내용	60
<표 3-10> 중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61
<표 3-11> 중학교 진로교육 풀(Pool)	62
<표 3-12> 고등학교 진로상담내용	63
<표 3-13>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63
<표 3-14> 고등학교 진로교육 풀(Pool)	64
<표 3-15> 연관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	65
<표 3-16>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66
<표 3-17>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67
<표 3-18> 진로성숙도 검사 분석대상	68
<표 3-19> 진로성숙도 검사	69
<표 3-20> 동아리 참여율 시계열 분석 결과	71
<표 3-21>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대상	72
<표 3-22> 학교알리미 자료 내 학교교육성과 지표	72
<표 3-23>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결과	74
<표 3-24> 위계적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76
<표 3-25> 학업중단율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78
<표 3-26> 진학률/취업률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81
<표 4-1> 지역별 면담 일정	90
<표 4-2> 대상별 면담 내용	91

<표 4-3> FGI 시행대상(진로진학상담교사)	93
<표 4-4> 유형별 비교 분석 대상(타교과교사, 학생)	101

그림 차례

[그림 1-1] 다차원적인 성과의 개념	7
[그림 1-2] 연구 추진 전략 및 절차	13
[그림 2-1]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관계도	19
[그림 2-2] 2012 진로활동실 설치율	33
[그림 2-3] 2012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35
[그림 2-4]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진로활동(중2, 고1)	37
[그림 2-5] 2012 진로활동별 경험과 만족도(중2, 고1)	42
[그림 3-1] 진로성숙도 시계열 비교	70

요 약

1. 연구의 목적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더 강조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가 실제로 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2011년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된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의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향후의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진로교육 및 학교교육 성과지표 선정

문헌 연구를 통해 성과 분석에 활용할 지표를 선정하고, 현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성과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성과가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를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에 따라 구분하

였다. 그리고 교육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에 활용할 진로교육성과지표(외재적 결과: 진로교육 운영 실적, 내재적 결과: 진로성숙도 등), 학교교육성과지표(내재적 결과: 학업중단율, 진학률, 취업률 등), 교육환경지표(소속 교육청의 진로교육평가 등급, 소속 지역 규모, 전체 학생 수 등)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4개(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진로활동실(진로상담실 또는 커리어존) 설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시수)를 선정하였다.

3.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와 부합되며 활용 가능한 항목을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학교알리미,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해당 항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비교,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에 따른 학교 유형별 비교,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도별 분석 결과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 진로교육성과(외재적 결과)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비교에서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항목이 도입된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진로교육 외재적 결과(output)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대

학 진학이 목적인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상담실의 설치가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outcome)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진로교육성과(진로교육 운영 실적)를 독립 변인으로, 학교교육성과(진학률, 취업률, 학업중단율)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에서는 환경적 변수를 통제하면 진로교육성과 중에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는 진로교육 운영실적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은 진로진학상담교사 FGI와 면담, 타교과교사 및 학생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FGI는 소속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상·중·하위권)과 중점교-비중점교의 여부에 따라 총 18개 학교(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각 6곳)를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중점교-비중점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비배치, 진로활동실 설치-미설치를 기준으로 6개 교를 선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중 3개 교는 FGI 대상교이기도 했다. FGI와 면담결과, 제한적인 부분에서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현시점에서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진로교육성과가 오히려 학업 성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안한다. 먼

저, 향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해당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진로교육지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학교알리미 자료는 교육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자료 상에 학교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탓에 학교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자료의 확보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감하지만 주요 성과지표와 관련된 자료(학업성취도, 학교폭력실태 등)를 확보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관련 자료를 하나의 기관이 모두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조사에 추가하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러한 자료가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용어의 정리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실재를 탐색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Super, 1957).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력과 학벌 획득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체제(이영호, 2002)에서 직업 세계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 선택의 기준도 연봉이나 안정성과 같은 외적인 지표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오호영 외, 2012). 이에 따라 정부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체험중심 교육의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창의적 체험활동)와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충원 및 조직 강화(교육부 진로교육과 신설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지역자원 발굴(진로체험기관 발굴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4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가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물론 진로교육 강화정책 시행 3년 차인 현시점에서 진로교육 강화가 학교 교육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교육 강화정책은 아직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향후의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위에서 언급하였듯,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자료를 제시한다.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 기법을 실행한다.
- 향후 지속해서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를 평가하고, 두 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제2절 용어의 정리

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란 목표의 효과적·효율적 달성을 위해, 성과를 일련의 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류량도, 2008; 이윤식, 2007). 여기에 활용되는 지표를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며, 성과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질적 척도라고 볼 수 있다(이윤식, 2007).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각 성과의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진로교육과 학교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데 따라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가 서로 겹치거나 분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진로교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이나 진로교육을 학교교육과 그 이후의 교육 전체를 포함하는 생애 전체의 교육으로 보는 관점이 적용될 경우 모두 두 교육성과가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나 진로교육성과 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측정(예: 임언, 2005)하거나, 개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효과를 측정(예: 윤희정, 2013; 조성심·주석진, 2010)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좁은 범위에서의 진로교육(예: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진로교육) 차원에서 진로교육성과를 측정함으로써, 학교교육성과와 경계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성과를 구분하기 위해 진로교육성과는 학교 단위의 진로교육 운영과 관련되었으며, 학생의 진로마인드를 직접

6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로 제한하였다. 학교교육성과는 교과교육 및 생활지도와 관련되었으며 학생의 학습 및 수업태도와 관련된 성과로 보았다. 진학률과 취업률은 진로교육성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까지 학교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노정현, 2012;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교교육성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되, 학교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성과의 범위를 제한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구분

	진로교육성과	학교교육성과
외재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로교육운영과 관련된 성과 • 진로교육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성과
내재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진로마인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 진로성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및 수업태도와 관련된 성과 • 학업성취도, 기초직업역량 • 진학률/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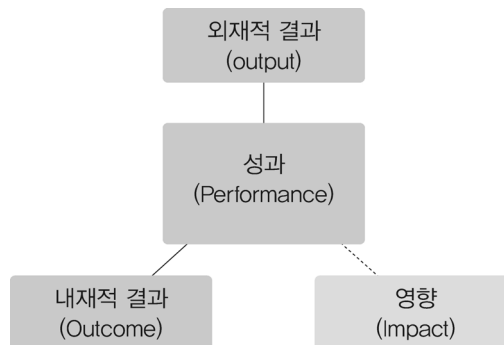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해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점은 성과(performance)의 개념이다. 기존에는 외재적 결과(output) 중심으로 보았던 성과의 개념을 외재적 결과뿐만 아니라 내재적 결과(outcome), 이후의 영향(impact)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이지혜·이인희, 2010).

전통적인 개념의 성과는 외재적 결과 차원에서 주로 측정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성과는 곧 외재적 결과로 평가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교육의 성과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횟수, 상담 실행 건수 등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내면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 이후의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과를 이해할 경우,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를 다차원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게 되어 측정 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교육성과의 영향 차원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면, 졸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해당 학생의 삶과 진로의 경로가 추적되어야 한다. 즉, 영향을 포괄하는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외재적 결과에 따른 성과만을 보는 데에도 역시 문제가 있으므로,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 두 차원에서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1], <표 1-2> 참조).

[그림 1-1] 다차원적인 성과의 개념¹⁾



1)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성과의 차원에는 영향(impact)이 포함되지 않음.

〈표 1-2〉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지표(예시)

진로교육성과		학교교육성과	
외재적 결과(output)	내재적 결과(outcome)	외재적 결과(output)	내재적 결과(outcome)
진로교육 운영실적	진로성숙도 진로교육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정체감	학교교육 운영실적 (학교폭력대응, 인권 및 안전교육 등)	학습 동기 증진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학교교육만족도 직업교육성과 진학률/취업률 일탈행동 감소 학업중단율

* 제시된 성과지표는 선행 연구와 기존 평가에서 활용된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표임.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향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측정을 위한 개선점 도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진로교육과 교육정책의 성과분석을 위해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통계에 활용될 지표의 목록을 작성한다.

나.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양적 분석 및 절차

본 연구는 통계분석에 기존부터 진행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조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후속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2 학교 진로교육지표²⁾와 학교알리미 자료³⁾,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⁴⁾를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한 세부 분석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교알리미 자료와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의 연도별 비교를 실행한다.
-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집단의 구분 및 비교 분석을 실행한다.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회귀분석으로 실행한다.

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절차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관계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한 세부 분석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상·중·하 그룹 중 각 1개 지역을 선정한다.
- 지역별 중점교와 비중점교 선정(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및 해당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행한다.

2) 2006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력하여 조사한 진로교육통계임.
 3) 2008년 12월부터 개통된 학교정보공시제도 포털임. 공시항목은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학업성취도 등을 포함함.
 4) 2001년에 개발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로, 온라인상에서 시행된 검사의 자료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되어 왔음.

10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점교-비중점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비배치 교, 커리어준유-무교의 비교(해당교의 타교과교사와 학생 인터뷰 조사)를 실행한다.

라. 향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개선 방안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해당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합쳐서 분석해야 하는 데서 오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조사를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보할 수 없었던 진로교육성과지표 자료와 학교교육성과지표 자료도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술적 연구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평가로서의 목적 역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부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내용은 진로교육의 정의 및 성과, 학교교육의 정의 및

성과 관련 기초자료 검토, 진로교육의 정책 환경 및 요인 분석 등이었다.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법령자료, 학술지, 교육부 보도자료 및 시·도 교육청 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였다.

나.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오호영 외, 2012)와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를 통해 학교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및 교육 여건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로교육 성과지표 및 학교교육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및 유형별 분석

일선학교의 진로교육 여건 및 진로교육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점교와 비중점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행하였다. 즉, 시·도교육청 진로평가 상·중·하위권 그룹에서 각 1개 교육청을 선발하여, 해당 교육청의 중점교와 비중점교를 추천받아 FGI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FGI 실행 후, 유형별로 분석할 6개교를 선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비배치 교, 커리어준유-무교, 중점교-비중점교의 비교를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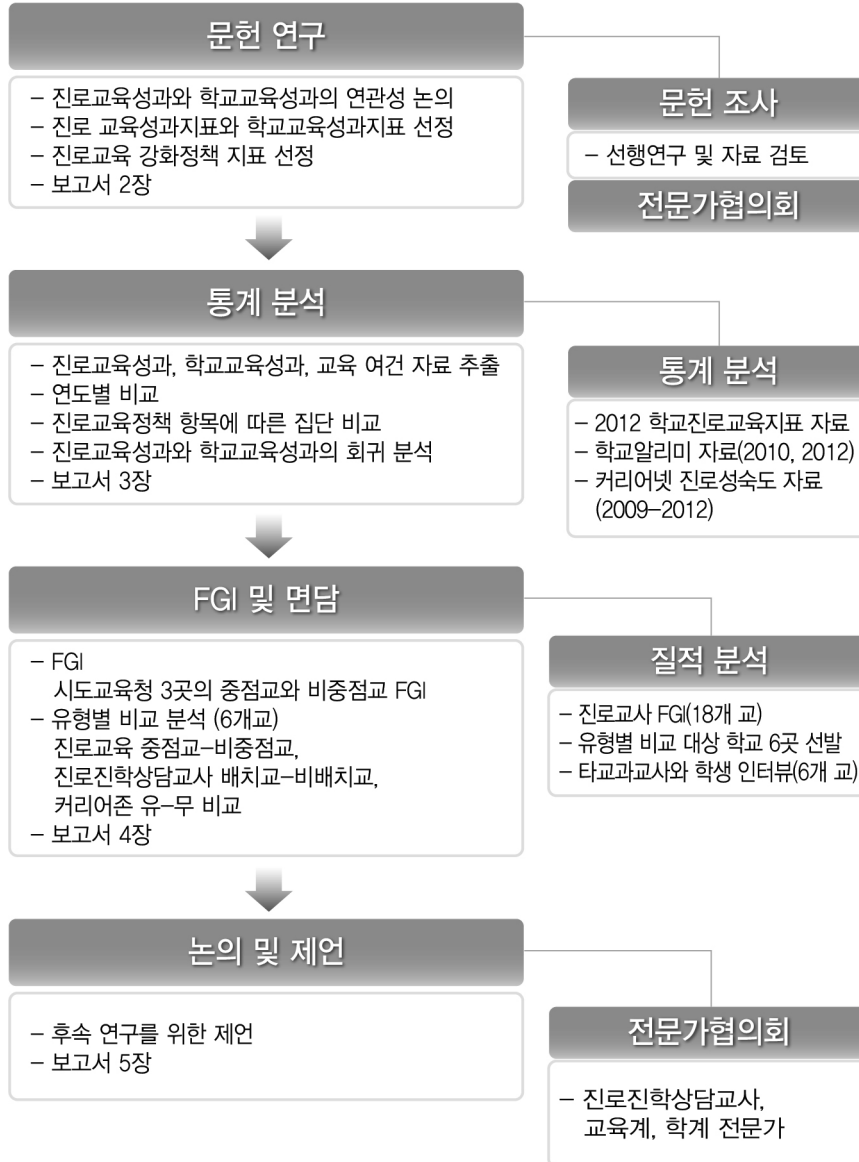
5) 유형별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처음 섭외되었던 학교 중 1곳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2013년 초에 전근해 왔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교는 유형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해당교에서 수집 타교과교사와 학생들의 질적 자료는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음.

라. 전문가협의회 개최와 세미나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개념정리 및 지표 도출, 통계분석 결과 검토,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지 검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총 5회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1회의 전문가 협의회에는 진로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제한이 따르는 현재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였다. 2회의 전문가 협의회에는 성과지표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장학관, 진로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1회의 전문가 협의회는 자료의 질적, 양적 분석 결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진로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석 방식의 적절성과 결과의 해석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1회의 전문가 협의회는 진로교육성과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진로교육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이상을 포함한 연구 내용은 [그림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2] 연구 추진 전략 및 절차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하에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범위를 축소하여 둘을 구분하고 있다. 진로교육성과에서 학교교육성과로 이어지는 한 방향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범위이므로, 학교교육성과가 진로교육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현 단계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분석 방법을 실행하는 한편, 후속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대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조사가 진행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학교알리미 자료,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

그러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제한점이 있었다. 주요 성과지표와 부합되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자료가 있어도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응답 방식이 연도별 또는 학교별로 일관적이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타 조사 자료에 비해 많은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규모 조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수용하며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제2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논의

제2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 선정

제3절 진로교육 정책 변화 추이

제4절 소결

제2장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함께, 두 성과의 예상 관계도를 예측하고, 연관성 분석에 활용할 진로교육성과지표, 학교교육성과지표,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지표를 추출하였다. 교육성과는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진로교육성과지표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교육 운영 실적을, 학교교육성과지표로는 진학을, 취업률, 학업중단을 등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지표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진로활동실(진로상담실 또는 커리어존) 설치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비중,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여부를 포함한 4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제1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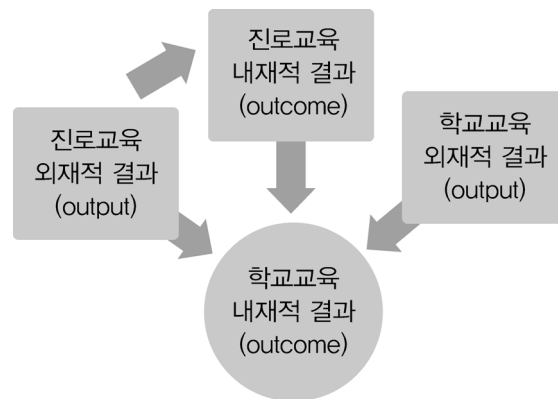
성과가 학교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두 교육성과가 모두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로 구분된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성과 내에서도 외재적 결과가 내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교육성과의 관계를 단순히 진로교육성과에서 학교교육성과로 이어지는 단선적(unilinear)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의 하나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분석한 안선영(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안선영(2006)은 펜실베이니아의 중등 실업계 현장실습이 유관분야취업과 무관분야취업, 그리고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참여와 유관 분야 취업 간의 정적인(positive) 관계를 확인하였다. 반면, 진학률과의 관계는 부적인(negative) 것으로 나타나 현장실습이 학생의 취업준비도는 높이지만, 학업성취도와 진학 욕구를 함께 높이지는 못함을 보여주었다. 안선영(2006)이 연구에 활용한 현장실습의 운영은 진로교육의 외재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취업과 진학은 학교교육의 내재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의 외재적 결과가 학교교육의 내재적 결과(유관분야 취업)로 이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송창용·신동준(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2006-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점수 차가 유의하며,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을수록 수능 성적이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외재적 결과가 내재적 결과로 이어지고, 다시 학교교육의 내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림 2-1]과 같은 모형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1]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관계도⁶⁾



여기서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가 학교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라면 두 외재적 결과가 모두 좋을 것이므로, 둘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쪽의 외재적 결과가 다른 쪽의 외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는 독립적으로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교육성과는 외재적 결과가 내재적 결과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

6) 학교교육의 외재적 결과가 진로교육의 내재적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는 진로교육성과에서 학교교육성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모형에서 이를 배제함.

육성과의 관계가 매우 단순화된 모형으로 제시된 까닭은 현재로서는 다른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하면서 분석을 실행하려고 한다.

제2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 선정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성과의 평가와 관리가 요구된다. 교육성과는 교육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나승일 외, 2011). 전자가 교육성과 중 외재적 결과의 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후자는 내재적 결과로 볼 수 있다.

1. 진로교육성과 지표

가. 진로교육 성과평가 사업

외재적 결과를 통한 진로교육성과의 평가는 교육청 단위로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진로교육 사업 실적 및 추진 계획, 지역의 실정, 수요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로교사 확보율(발령률 및 선발률) 및 진로교육 예산 확보,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진로체험 운영 현황,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

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정부는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추진할 진로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교육부, 2012a)에서는 6개 중점교육청(대전, 경남, 대구, 부산, 충남, 서울)이 선정되어 총 30억 원(각 5억 원씩)이 지원되었고, 선정된 우수 교육청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관내 시범학교에는 학교의 진로활동과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었다. 또한, 중점교육청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이 연말에 개최되었다(<표 2-1> 참조).

<표 2-1> 2011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결과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순위	1~3위	4~6위	7~10위	11~13위	14~16위
대상	대전, 경남, 대구	부산, 충남, 서울	충북, 인천, 제주, 경북	광주, 전남, 울산	경기, 강원, 전북
비고	우수 교육청, 5억 원씩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활동실 설치·운영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개최 (2011년 11월 17일 서울, 11월 18일 부산, 12월 8일 경남)		-		

출처: 교육부(2012a). 1월 5일 보도자료. 1쪽 재구성.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교육부, 2013a)에서는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가 중점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교육청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⁷⁾)’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 진로교육 환경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각 5억 원이 지원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2012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결과

구 분		1~3위	4~7위	8~9위
대상	특별/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도	충남, 경남, 제주	경기,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충북
비고		우수 교육청, 5억 원 지원	-	-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시범·연구학교 운영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학부모 진로 콘서트 개최		

출처: 교육부(2013a). 1월 18일 보도자료. 1쪽 재구성.

나. 진로교육 성과평가 선행 연구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외재적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로교육 연구에서는 내재적 결과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의 목적으로 진행된 성과평가는 주로 학교 단위 또는 학급 단위가 많으나, 학교의 전수조사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이후의 진로교육 성과평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표 2-3>에서 제시된 지표들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지표는 진로성숙도였으며, 그 뒤를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 효능감이 이었다.

7)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활동

〈표 2-3〉 진로교육성과 평가 선행 연구와 활용 지표

구 분	외재적 결과	내재적 결과					
	진로교육 운영 실적	진로 성숙도	진로교육 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 효능감	진로 의사결정	진로 정체감
윤형한 외(2005)		o			o		
이영미 외(2005)		o					
임언 외(2005)		o			o	o	
김양현 외(2006)		o					
박행모(2006)		o					
정철영 외(2006)		o					
진혜영 외(2006)						o	
김희수(2007)		o				o	
이지연(2007)		o			o		
이현림 외(2007)					o	o	
어윤경(2008)		o	o				
이정금(2009)				o	o		
이혜숙 외(2009)		o					
조성심 외(2010)		o					
임현정 외(2011)		o					
손유미 외(2011)		o					
김경식 외(2012)		o					
김규효 외(2012)		o					
김미연 외(2012)		o					
김성현(2012)		o					
남석현 외(2012)		o		o			
신임선 외(2012)		o					o
오호영 외(2012)	o		o	o		o	
윤소민 외(2013)		o					
윤희정(2013)						o	

* 관련 선행 연구는 Google Scholar와 prism.go.kr에서 검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진로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선별하였음.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진로교육의 내재적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고려하는 반면, 오호영 외(2012)의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에서

는 진로교육 운영실적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학교 또는 학급을 단위로 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졌지만,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5,000여 개 중고등학교의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 2-3>에 제시된 지표를 포함하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기존에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규칙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조사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에는 진로교육성과지표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진로성숙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속해서 진로성숙도 자료가 수집되는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3장에 첨부하였다.

2. 학교교육성과 지표

가. 학교교육성과를 위한 지표 체계

학교교육성과의 경우, 지표를 ‘투입-과정-결과’의 체계로 보는 관점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모형은 교육성과의 측정에 있어 교육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황정원, 2010) (<표 2-4> 참조).

<표 2-4> 학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종합적 학교지표 체계

구분	Porter(1991)	Williams(1992)	Fitz-Gibbon(1996)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경 • 교사의 자질 • 자원(재정 등) • 부모, 지역사회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연령, 성별 • SES(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형제 수 등) • 인종/민족 • 영어 구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성취도 • 사전 태도 • 성별 • 인종 • 영어 구사 능력 • SES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특성 (학교교육, 국가/지역 수준 등) • 교육과정의 질 • 교수(teaching)의 질(학생 특별 활동, 교사·수업의 질, 자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측면(학급·학교·지역 규모, 학생당 교육비 등) • 인종 차별 • 규율 및 징계 • 성취 압력 • 학생의 태도(학업에 대한 무력감, 학교 만족도, 출결상황 등) • 교사의 역량(효능감, 열의, 목표 의식, 가치관, 근무 환경 등) • 교장의 교육적 리더십(태도, 정책 수립, 행동,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변수 (학교의 노력으로 변경 가능한 요인) • 학교 경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성취도 • 참여율 (중도 탈락) • 태도와 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수학, 읽기 등) • 인성 및 사회적 영역(자아 개념, 통제 전략, 스포츠 참여율, 특별활동 참여 등) • 직업 교육(직무 경험, 직업 관련 기술, 직업에 대한 태도, 졸업 후 진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 • 학교에 대한 태도 • 교과에 대한 태도 • 포부(aspiration) • 학교 생활의 질 지표

출처: 황정원(2010).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의 타당성 연구.

<표 2-4>에 제시된 학교교육성과지표 중 Fitz-Gibbon(1996)의 모형이 본 연구에서 보고 있는 성과의 모형과 가장 잘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에 제시된 지표는 주로 외재적 결과와 부합되며, ‘결과’에 제시된 지표는 내재적 결과와 잘 부합된다. 다만, ‘투입’에 제시된 환경적 요인은 국내 학교의 특성에 잘 맞지 않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모형에 제시된 학생배경과 지역사회 특성, 학교의 특성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투입-과정-

결과' 모델에서 강조되는 교육맥락을 반영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교육 환경적 요인과 학생의 배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학교의 교육적 환경이나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해도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학교교육성과 평가 선행 연구

Fitz-Gibbon(1996)의 모형은 해외에서 1990년대에 제시된 모형이므로, 최근의 국내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학교교육성과의 지표를 검토하였다.

학교교육성과 역시 진로교육성과와 마찬가지로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의 다각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진로교육 성과는 외재적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던 반면(예: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학교교육성과는 과거에도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재적 결과 관점이 팽배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견해가 단순히 학업성취도 중심이었으나, 점차 비인지적 요소(학습태도, 인성, 도덕성 등)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황정원, 2010) (<표 2-5> 참조).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학교알리미 자료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요소(예: 일탈행동 감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교육성과지표 중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입-과정-결과' 모형에서 강조하는 교육맥락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표 2-5〉 학교교육성과 평가 활용 지표

구 분	외재적 결과		내재적 결과							
	학교 폭력 대응	인권 및 안전 교육	학습 동기 증진	자아 존중감	학업 성취도	학교 교육 만족도	일탈 행동 감소	진학을/취업률	학업 중단율	직업 교육 성과
김주후 외 (2006)					o	o				
정택희 (2008)									o	
박선미 (2009)				o						
정재영 외 (2009)					o					
김신영 (2010)					o					
송미영 외 (2011)					o					
이현숙 (2011)					o					
김태영 외 (2012)			o							
노정현 (2012)	o	o					o	o	o	
한국교육개발원(2012)	o						o	o	o	o
현이경 (2012)			o							
학교알리미 (2008~)	o	o			o		o	o	o	

* 2005년 이후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함.

제3절 진로교육 정책 변화 추이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2-6〉 2011년 이전과 이후의 정책 변화 추이

구분		정책 내용
2011년 이전	1995년 5.31 교육개혁	학습자 중심의 교육 평생직업교육 기반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 수행평가 도입
	7차 교육과정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10년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구분
	2007 개정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진로와 직업 교과 신설(고교)
2011년 이후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	수준별 수업과 비수준별 교과의 집중 이수(중학교) 진로집중과정(고교)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축소 학기당 이수 과목 8개 이하로 축소 에듀팍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진로교육 강화정책	교육부 진로교육과 신설(현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및 배치 교내 진로상담실/커리어존 설치 지원 진로와 직업 교과 신설(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통합) 진로교육 확대(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박람회 등)

1. 2011년 이후 정책의 변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중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진로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12b). 이와 같은 진로교육 목표를 토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된 2011년 이후부터 진로교육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표 2-7> 참조).

<표 2-7> 2011년 이후 진로교육 정책 주요 추진 과제

추진 과제	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전담부서 신설	교육부 인재정책실 진로교육과	진로교육인재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진로진학상담’ 교과 신설	진로진학상담교사 2,999명(누적합계, 중 30%, 고 90%)	진로진학상담교사 4,550명(누적합계 중 72%, 고 100%)	
	진로진학상담교사 1,291명 배치		진로교사 심화연수 운영	
진로 교육 운영 여건 마련	배치 교 교장/교사연수 1,500명	배치 교 교장/교사연수 1,529명	배치 교 교장/교사연수 1,551명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1,000명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22,000명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21,000명 일반교원 특별연수 900명	
	진로활동실 시범 설치	진로활동실 설치 (중 824개교, 고 1,019개교)		
	진로교사 직무 매뉴얼 진로교육 연수교재 교과통합 진로교육 매뉴얼 진로교육 단계별 계열별 목표 설정	총 25 종	진로교사 직무 매뉴얼 진로활동지도서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진로체험 매뉴얼 초등용 직업애니메이션	총 55 종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42%	채택률 40%	-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적용학년 확대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학교 단계 1회 이상 직업체험 필수화 체험처 발굴 확대(4,695개)	중고교단계 1회 이상 진로체험 필수화 (목표율 35%)	
	진로캠프 참여	참여 학생 수 260,085명	학생 1인 1 캠프 참여	
	진로박람회	진로박람회 운영		

※ 교육부 보도자료(2011 ~ 2013)와 유형한 외(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가. 진로교육 전담부서 신설

정부는 2011년 중앙부처(교육부 인재정책실)에 진로교육 전담부서인 ‘진로교육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진로교육과는 2012년 ‘인재정책과’와 통합되어 ‘진로교육인재정책과’로, 2013년에는 진로교육정책과로 조직 개편되었다. 정부가 초·중·등 진로교육,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집중 육성 등 직업기술인재와 창의인재 양성을 강조함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 또한 커졌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규모도 확대된 것이다.

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육부령 제104호(2011.4.4.)에 따라 2011년에 신설된 자격이며 국어과 교사, 영어과 교사 등과 같은 정식 교사이다. 교과교사로서 ‘진로와 직업’ 교과 지도를 수행하고, 입학사정관제 운용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활성화와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의 진로진학지도를 총괄·전담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80% 이상이고, 100% 이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다(<표 2-8> 참조).

〈표 2-8〉 진로진학상담교사 시·도별 배치 현황(2011~2013)

(단위: 명)

지역	전체 학교 수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총 인원	배치율* (%)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서울	382	309	691	94	135	229	24	56	80	261	85	346	655	94.79
부산	197	116	313	54	49	103	13	32	45	130	35	165	313	100.00
대구	132	83	215	41	38	79	10	16	26	82	28	110	215	100.00
인천	206	43	249	64	25	89	21	9	30	111	8	119	238	95.58
광주	85	67	152	20	35	55	6	8	14	59	25	84	153	100.66
대전	102	46	148	30	23	53	6	6	12	68	15	83	148	100.00
울산	96	17	113	37	10	47	12	3	15	47	4	51	113	100.00
경기	785	222	1,007	243	92	335	68	32	100	448	76	524	959	95.23
강원	244	36	280	49	14	63	49	7	56	64	9	73	192	68.57
충북	172	40	212	46	17	63	31	7	38	59	12	71	172	81.13
충남	220	79	299	59	28	87	29	6	35	88	36	124	246	82.27
전북	223	117	340	22	39	61	8	2	10	20	1	21	92	27.06
전남	319	83	402	50	34	84	48	14	62	84	25	109	255	63.43
경북	306	166	472	79	79	158	39	19	58	58	54	112	328	69.49
경남	303	154	457	89	64	153	28	19	47	136	52	188	388	84.90
제주	58	15	73	20	9	29	6	0	6	26	5	31	66	90.41
세종	16	1	17	3	1	4	4	0	4	9	0	9	17	100.00
합계	3,846	1,594	5,440	1,000	692	1,692	402	236	638	1,750	470	2,220	4,550	83.64

출처: 교육부(2013d). 1월 7일 보도 자료, 5쪽.

- 주: 1) 전체 학교 수는 KEDI 교육통계연보(2011.4.1) 기준, 세종시는 2013.3.1 기준
 2) 2012. 9. 1 발령 및 선발 기준, 2013년 연수자는 현 재직 학교 기준으로 작성
 3) 배치율은 전체 학교 수 대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비율

2013년부터는 기존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받고 배치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교사 심화연수’가 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사 심화연수’는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학생 상담과 심리검사, 현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진학 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연수는 ‘진로상담’, ‘심리검사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기법’, ‘진학지도 역량 강화’, ‘기업의 이해와 직업 세계의 변화’ 등 6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2,3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 슈퍼비전 연수’는 커리어넷 진로상담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이다. 여기에서 선발 양성된 2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연수 후 지역별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커리어넷과 웹을 통하여 상담하고,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상담의 수요를 면대면 상담으로 분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SCEP 연수’는 진로수업 및 창의체험 진로 활동,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사 1인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SCEP 운영을 위한 연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시·도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진로교사 2,999명, 일반교사 6,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진로교육 운영여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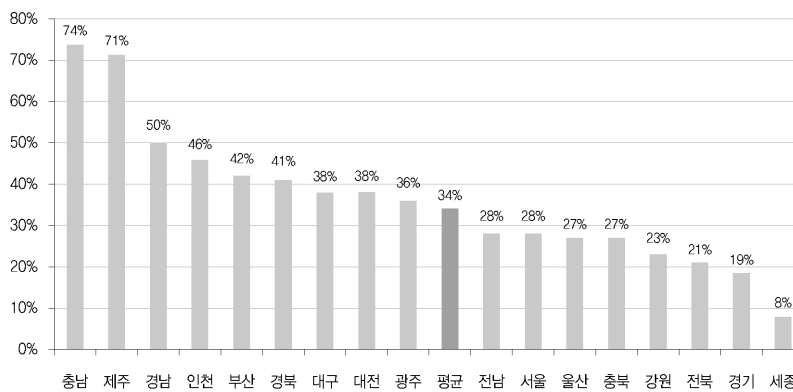
1) 진로활동실 설치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활동 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배치학교 내 진로교육 기반 구축도 필수적이다. 진로활동실 운영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 내에서 원활한 진로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활동실은 진로 교과

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활동 등 진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전용 공간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진로활동실을 시범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는 원칙적으로 진로활동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진로활동실은 2012년 1,843개 교(중학교 824개 교, 고등학교 1,019개 교)에 설치되었다. 진로활동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로적성검사와 진로상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교육부, 2013a)에 따르면, 진로활동실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 평균 3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로활동실 설치율은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19%)와 세종(8%)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그림 2-1] 참조). 전국 평균 설치율 역시, 중학교 28%, 고교 47%에 불과하여 진로활동실 설치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림 2-2] 2012 진로활동실 설치율



출처: 교육부(2013a). 1월 18일 보도자료. 7쪽 재구성.

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의 교장/교사 연수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장, 교감, 동료교사들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기존에 진로진학을 담당하던 교사들과 업무 충돌을 겪는 등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정운경 외, 2012).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의 교장·교감과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장 연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신규 배치되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연수는 시·도 자체 일반교원 연수와 교육부와 진로교육에 전문성 있는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청소년정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을 통한 진로 특별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표 2-9〉 2013년도 교장·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종류 및 인원

연수 종류	연수 인원
진로교사 심화연수	2,300명
일반교사 진로 특별연수	900명
진로교사 배치 교 교장연수	1,551명
상담 슈퍼비전	200명
SCEP* 연수	9,699명
인원 계	14,6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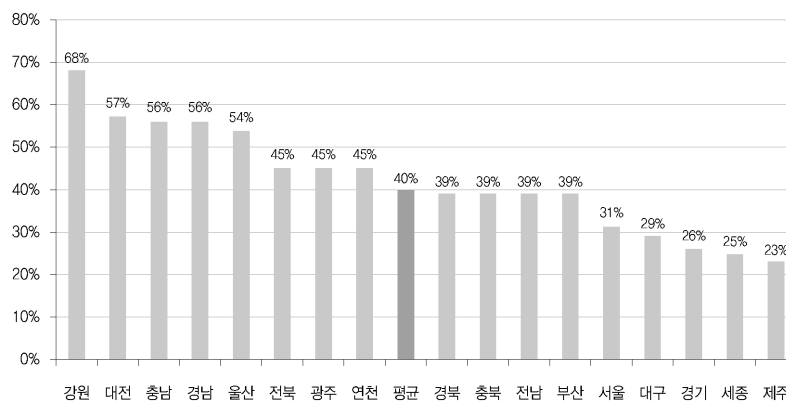
*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단위 실천 프로그램.

출처: 교육부(2013e). 2월 5일 보도자료. 1쪽.

라. 진로와 직업 교과 확대

진로교육 강화정책은 교과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고등학교 선택교과였던 ‘진로와 직업’ 교과가 중학교 단계로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기당 이수과목이 8개로 제한되면서, 2012년 ‘진로와 직업’ 교과의 채택률은 평균 40%로 2011년도(42%)에 비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2012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출처: 교육부(2013a). 1월 18일 보도자료, 7쪽 재구성.

마.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1)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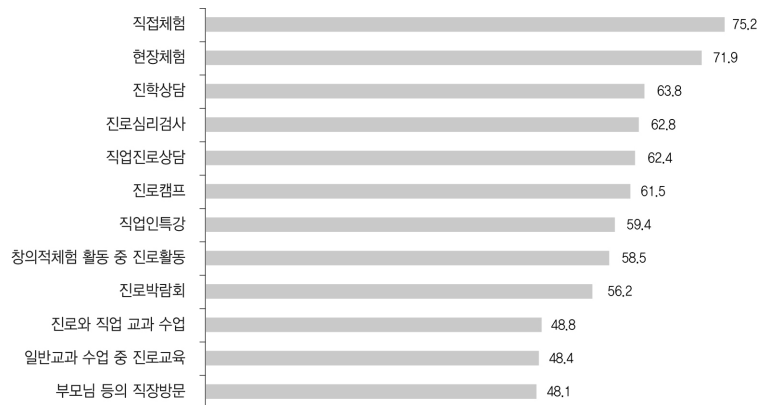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기존 학교 진로교육에서 취

약했던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시수가 확보된 것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체계의 하나로 ‘진로활동’이 명시됨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시기인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내용체계도 학교급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로 제시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급의 특성이나 발달단계, 학교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내용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단위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2) 진로체험

진로체험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고, 미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육 활동이다. 2012년에 실행된 진로교육 성과 및 지표조사(오호영 외, 2012)에 따르면,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진로활동으로 설문에 참가한 학생 중 75.2%가 직접체험, 71.9%가 현장체험을 선택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진로활동(중2, 고1)



원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와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 기부를 활용한 제과·제빵 체험, 항공기 기내 체험 등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교육 기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정보 등을 DB화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주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보급하였다. 특히, 지역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은 ‘진로체험 버스’를 운영해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2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교육부, 2012b)에 따라 2012년부터 중학교 단계에서 1회 이상 직업체험을 필수화하고, ‘진로의 달’, ‘진로체험 주간’, ‘진로체험의 날’ 등을 운영하였다. 고등학교 계열 선

택을 앞둔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체험 위주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직업 세계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교육 기부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 기부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학부모 직장체험’이다. 학생들이 부모 또는 멘토의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개방하는 것으로, 미국의 ‘Take Our Daughters and Sons to Work⁸⁾’ 사업을 모델로 하였다. 둘째는 ‘학생 인턴십’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일주일)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견학’으로 학생들이 기업의 생산시설,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의 업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시·도교육청 진로체험 현황(교육부, 2013b)을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에 참가한 학생은 120만 명으로 체험 유형별 참여 인원은 직업체험 63만 명, 대학 학과체험 32만 명, 공공기관 및 기업 주관 체험 25만 명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표 2-10〉 2012년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인원

구 분	직업체험 (직장체험)		학과체험		기타 (외부기관, 기업)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참여횟수/인원	10,820	635,508	5,205	320,755	1,771	246,170	17,796	1,202,433

출처: 교육부(2013b). 2월 18일 보도자료. 1쪽.

주: 1) 강연형(대화형) 및 현장 견학형 등의 간접 직업체험은 집계에서 제외.

2) 학과체험은 대학과 특성화고 활용 진로체험, 기타는 외부기관 및 기업 등 주관 체험.

8) 매년 4월 4번째 목요일에 부모나 멘토의 직업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가 직업 세계를 탐색하도록 하는 전국 규모의 캠페인

전국 4,695개의 기관이 진로체험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경기 970개, 서울 691개, 경남 381개, 경북 318개, 부산 309개, 전남 253개 등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1〉 시·도별 2012년 체험처 발굴 현황

시·도별	참여기관 수	시·도별	참여기관 수
서울	691	강원	190
부산	309	충북	167
대구	211	충남	243
인천	230	전북	244
광주	150	전남	253
대전	146	경북	318
울산	111	경남	381
세종	16	제주	65
경기	970	합계	4,695

출처: 교육부(2013b). 2월 18일 보도자료. 2쪽.

주: 교육 기부 MOU 기관을 포함.

정부는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교육부, 2013c)에 따라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1회 이상 진로체험을 필수화하여 진로체험 132만 명(중·고생의 35%)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의 직업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진로체험 및 진로캠프를 위하여 160억 원을 투자하고, 지자체의 진로체험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3) 진로캠프 운영

진로캠프는 진로검사,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6시간 이상) 운영하여,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설계를 돕는 교육 활동이다. 학생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코치와 1:1 맞춤형으로 진로계획, 학습 방법, 진학 준비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받게 된다.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진로캠프가 지역 간 진로체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진로캠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진로·진학에 대한 대화와 탐색을 할 수 있는 ‘父子진로캠프’를 비롯하여 ‘진로 전환기(초6, 중3, 고3) 진로캠프’, ‘대학과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진로캠프’ 등 다양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생·학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민간 위탁운영을 지양하는 대신 공공기관 및 시설, 기업 등의 교육 기부 자원을 활용한 진로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질자원연구원의 ‘Creative Geo Camp⁹⁾’,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Aviation Camp¹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 ‘토요 진로캠프’와 ‘주중 진로캠프’는 연간 10회 이상 운영하고, ‘방학 진로캠프’와 ‘전환기 진로캠프’는 연간 4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수학여행·수련회·전환기(초6, 중3, 고3)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캠프를 통해 이들 학생에게 집중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9) 교사대상으로 체험 지질 여행 운영, 쓰레기 섬을 자원으로 만드는 탐험 프로그램

10) 항공우주 분야 관련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보유 시설을 활용한 교사 연수와 학생 체험 프로그램

하였다. 2012년 진로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26만 명으로 진로캠프 유형별 참여 인원은 교육청 주관 캠프 10만 명, 단위학교 주관 캠프 12만 명, 지자체 및 기업 주관 캠프 4만 명이다(<표 2-12> 참조).

〈표 2-12〉 2012년 진로캠프 유형별 참여 인원

(단위: 명)

구 분	교육청 주관		단위학교 주관		기타 (지자체, 기업)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참여인원	723	104,337	1,558	118,056	640	37,692	2,921	260,085

출처: 교육부(2013b). 2월 18일 보도자료. 2쪽.

정부는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교육부, 2013c)에 따라, 시·도별 특색을 살린 진로캠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1인 1 캠프 참여’를 위해 시·도별 3개 이상의 상설캠프를 운영하고, 교육청·지원청 주관 무료 캠프만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원 등 무료 공공시설(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및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등)을 활용하여 진로캠프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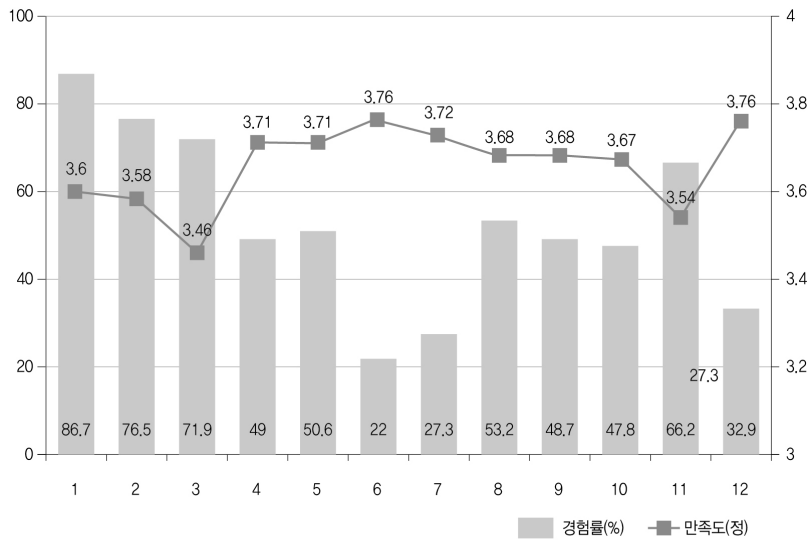
4) 진로 박람회

시·도교육청은 ‘진로 박람회’를 통해 진로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유도해 왔다. 2012년에는 부산, 전북, 대구, 서울에서

42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진로박람회가 열렸고, 진로적성 검사와 진로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진로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의 유명인, 국내·외 석학 등을 초대하여 명사 특강도 시행되었다.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오호영 외, 2012)에 따르면, 진로 박람회는 낮은 체험률(27.3%)에 비해 높은 만족도(3.72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참조).

[그림 2-5] 2012 진로활동별 경험과 만족도(중2, 고1)



- | | |
|---------------------|-------------------|
| 01 진로심리검사 | 07 진로박람회 |
| 02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활동 | 08 직업진로상담 |
| 03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 09 진학상담 |
| 04 직업체험 | 10 직업인 특강 |
| 05 현장체험 | 11 일반교과 수업 중 진로교육 |
| 06 진로캠프 | 12 부모님 등 직장방문 |

출처: 교육부(2012c). 진로교육정책 설명자료집. 54쪽.

2.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내용은 크게 교육부 내 진로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교육 운영여건 마련(교내 진로활동실 설치 지원과 교장·교사 연수), 진로와 직업 교과 의 운영, 체험중심 진로교육의 강화(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확보 및 기타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자면 <표 2-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에 따라 학교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 2-13〉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항목	해당 문항
진로와 직업 채택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여부
진로활동 시수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평균 배당 시수
진로진학상담교사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교내 진로활동실 설치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 진로활동실 설치 여부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먼저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두 성과의 연관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두 성과 모두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1)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가 바로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와 2)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가 내재적 결과로 이어져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3) 학교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가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로 모형을 그려볼 수 있었다.

또한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두 교육성과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는 한편, 지속해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 향후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조사 자료(진로교육 지표조사, 학교알리미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를 분석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진로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활동실 설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시수 비중을 포함한 총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유형별 비교를 하고,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본 장에서 예측해 본 모형과 진로교육성과 및 학교교육성과지표,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양적·질적 분석을 실행하려고 한다.

제3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양적 분석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제3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제4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제5절 소 결

제3장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양적 분석

본 장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지표에 따른 학교 유형별 비교, 진로교육 강화정책 전후를 비교하는 연도별 비교, 그리고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진로교육성과(외재적 결과)가 학교교육성과(내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장에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의 양적 분석을 시행한다. 제2절에서는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창

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교육 평균 배당 시수-을 시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과를 비교하고,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이 학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2011년 진로교육 강화정책 시행 이후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와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고, 진로교육성과의 시계열 변화는 커리어넷의 진로성숙도 검사 2009년~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취업/진학률, 학업중단율)가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한다.

〈표 3-1〉 양적 분석 개요

구성		분석 내용
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¹⁾을 시행한 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집단 비교 분석 •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과 학교교육성과 분석
3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강화정책(2011년) 시행 전(2010년)과 시행 후(2012년)의 학교교육성과 비교 분석 • 진로교육성과 2009년~2012년 시계열 분석
4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주: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이란 주요 진로교육 강화정책 중,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되며 수치화가 가능한 4가지 항목을 의미한다. 즉,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평균 배당 시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진로상담실 및 커리어존 설치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2. 연구 방법

제2절에서는 진로교육지표(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을 시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과를 단순비교하고, 진로교육 4대 강화정책이 학교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시행하여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학교알리미(2010년, 2012년) 자료와 커리어넷의 진로성숙도검사(2009~2012년)의 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을 시행한다.

제4절에서는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와 학교알리미(2012년) 자료를 병합한 자료를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표 3-2〉 양적 분석 방법

구분	구성	자료	모형
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다변량 분산 분석 (MANOVA)
3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학교알리미 (2010, 2012년)	시계열 분석
		진로성숙도검사 (2009~2012년)	
4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 학교알리미 (2012년)	위계적 회귀 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표 3-3〉 양적 분석에 활용한 지표와 문항

구분		진로교육지표	학교알리미	진로성숙도
진로 교육 성과	진로성숙도	-	-	- 진로성숙도 8개 지표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독립성, 정보 활용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일반 직업에 대한 지식,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활동)
	진로교육 운영 실적	- 진로교육 운영 유형(심리검사, 진로 활동, 상담, 체험 등) - 진로상담 운영 건수 및 평균 상담 시간 -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 진로교육 자원 확보 실적	- 동아리 활동 현황 (동아리 참여율)	-
학교 교육 성과	진학/취업률	-	- 졸업생의 진로현황 (진학/취업률)	-
	학업중단율	-	- 학업중단율	-

가. 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는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학교알리미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자료를 사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학교진로교육지표 자료는 기존 진로교육지표조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나 매년 표집방법, 문항, 응답방식 등이 변경되어 이전 진로교육지표들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었고, 학교알리미 자료는 학교교육성과 지표 중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도와 학교폭력 실태

등의 지표를 학교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는 검사가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정확한 개인정보가 많았고, 타 자료와 병합(merge)할 수 있는 기준 변수(key variable)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각각의 자료마다 한계점이 있지만, 이 자료들이 현존하는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양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써 향후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적 분석 및 자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절 소결에서 제시한다.

1) 진로교육지표

진로교육지표는 학교 진로교육의 현황, 성과 등을 이용하여 진로교육 통계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개발 및 실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력하여 조사한 자료이다(오호영 외, 2012).

2007년에는 초·중·고·대학생을 표집한 학생 조사와 초·중·고·대학교 전수 조사를 실행하였음에도 응답률이 높지 않아 2008년 조사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각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이상준 외, 2008), 2009년 조사에서는 2007년도 조사 대상이었던 초·중·고등학생 중 각 1,000명씩을 표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이상준·정윤경, 2009).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2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와 초등학교 표본 조사, 학생 표본 조사, 학부모 조사를 진행하였다(오호영

외, 2012). 그 결과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의 응답률은 2007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중학교 3,123개 교, 고등학교 2,267개 교가 응답하였다.

진로교육지표는 ‘투입-과정-결과’로 진로교육성과의 체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문항들은 교육환경, 외재적 결과(output), 내재적 결과(outcome)로 분류할 수 있다(<표 3-4> 참조). 외재적 결과는 학교에서 실행한 노력, 진로교육의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지표이고, 내재적 결과는 이러한 지표들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향상 여부에 대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 운영 유형, 진로 검사 및 상담 실적 등의 문항은 외재적 결과이고, 진로진학상담조직 등의 문항은 교육환경에 해당하며, 성과로 정리된 문항들은 내재적 결과에 해당한다.

〈표 3-4〉 진로교육성과 및 지표 조사 체계

	외재적 결과 및 교육환경		내재적 결과
	투입	과정	결과
학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민 • 성적과 가정형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활동 • 진로캠프 • 진로진학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 진로목표와 실천 • 진학목표 • 희망직업
학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연간계획 및 예산편성 • 교장 선생님의 인식과 지원 • 진로교육 전용 공간 • 교육청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운영 유형 • 진로와 직업 • 창체과 교과 통합 진로교육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 진로검사 및 상담 • 진로교육 실태 파악 및 성과 관리 시스템 • 진로진학상담조직 • 진로진학상담교사 업무 •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 실태 및 요구사항 	

출처: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 투입과 과정은 외재적 결과와 교육환경 문항이 혼재되어 있음.

진로교육지표의 투입-과정-결과 체계 중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에 포함된 조사 문항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은데, 문항이 매년 변경되어 2012년 자료는 이 지표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내재적 결과(성과) 지표는 학생 조사만 진행되었으나, 2012년의 경우 학교는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학생은 표본조사¹¹⁾를 하여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학교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¹²⁾.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지표는 다른 자료들에 비해 진로성과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5> 진로교육성과와 교육환경 지표 및 해당 문항

구분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문항	
진로교육 성과지표	학생 조사	직업 가치관	-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가치 - 직업선택의 기준
		진로 의사결정	- 희망직업 보유 여부
	진로교육 만족도	- 학생의 학교 내 진로교육만족도	
학교 조사	진로교육 운영 실적	- 진로교육 운영 유형(심리검사, 진로활동, 상담, 체험 등) - 교사 진로상담 건수 및 평균 상담 시간, 상담 내용 -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 진로교육 자원 확보 실적	
학교교육 성과지표	학생 조사	학교교육 만족도	-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

출처: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재구성

- 11) 중고등학생 조사는 480여 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학교당 2개 학급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만 조사하여 조사대상이 특정 학년에만 편중된 문제점이 존재함.
- 12) 진로교육지표의 경우 패널(panel) 구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어 2006년~2012년 자료 간 설문구성 미지속성, 기준 변수(key variable) 미설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횡단면 분석(cross-section analysis)을 한다.

2) 학교알리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개통된 학교 정보 공시 제도 포털 사이트이며, 매년 1회 이상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주요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활동, 교육 여건, 예·결산 현황, 학업성취도에 관한 내용이다.

학교알리미 자료의 항목 중 본 연구의 진로교육성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동아리 활동 현황뿐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자료와 매칭(matching)할 경우 학교 교육환경 등의 배경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표 3-6> 참조). 현재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교육환경이 모두 조사된 자료는 없으므로, 학교알리미 자료가 다른 자료와 매칭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다만 학교알리미의 경우 원자료 제공에 제약이 있어¹³⁾ 학교교육성과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학업성취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항은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율과 진학률/취업률만을 학교교육성과지표로 사용하였다.

13) 학교알리미 각각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시되나 전체 원자료는 교육부의 협조가 있어야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실태 등의 일부 자료는 공유될 수 없음.

〈표 3-6〉 교육성과 및 교육환경 지표와 학교알리미 문항

구분			학교알리미 문항
진로 교육 성과 지표	외재적 결과	진로교육 운영 실적	- 동아리 활동 현황(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학교 교육 성과 지표	외재적 결과	학교폭력대응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적 - 학교폭력교육 실적(학생, 교사)
		학업성취도	- 학업성취도*(일반고, 중학교)
	내재적 결과	직업교육성과	-
		진학률/취업률	- 졸업생의 진로현황(진학률, 취업률)
		일탈행동	- 학교폭력 실태*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율		
교육환경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학생 특성	학생 - 입학생 현황(비정규 입학생 비율) 학생 - 학비 감면 인원 비율	
	방과 후 활동 현황	동아리 활동 현황(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학생 수 대 비 동아리 수 등) 방과 후 학교 연간 지원 금액	

출처: 학교알리미 문항 재구성

주: 학업성취도, 학교폭력대응실적, 학교폭력 실태는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3)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는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에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이다(임언 외, 2012). 본 연구에서 분석한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는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독립성, 정보 활용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일반 직업에 대한 지식,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활동 총 8가지 영역을 포함한다(<표 3-7> 참조).

〈표 3-7〉 진로성숙도 검사 지표

성취 지표	하위 영역	내용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계획성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해 보고,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자기 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독립성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일반 직업에 대한 지식	일반적 직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하는 일, 임금 / 근무환경, 필요한 능력과 환경)
진로 탐색, 디자인 및 준비	정보 활용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진로 탐색 및 준비 활동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

출처: 임언 외(2001) 및 진미석 외(2011) 재구성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학교분류(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 지역 등에 부정확한 개인정보가 많다. 따라서 다른 자료와 매칭할 수 있는 기준 변수(key variable)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는 진로교육성과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나. 변수 및 모형 설명

1)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본 연구에서는 4대 진로교육 강화지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산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다루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확장한 것으로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량적 변수를 토대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정량적 종속변수들의 차이를 측정한다. 분산분석과 다변량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text{분산 분석: } Y1 = X1 + X2 + X3 + \dots + Xn$$

$$\text{다변량 분산 분석: } Y1 + Y2 + \dots = X1 + X2 + X3 + \dots + Xn$$

다변량 분산 분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찰 결과들이 독립적(independence)이어야 하고, 둘째, 모든 처리 집단에 대하여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여야 하며, 셋째, p개의 종속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장원경 외, 2005).

2)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이란 회귀분석 시에 이론적으로 설정된 단계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회귀분석에서는 더 많은 수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과 더 적은 수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이 서로 비교되는데, 이때 더 큰 모형이 더 작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 두 모형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은 모형에 있는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고서 추가되는 새로운 예측 변수(집합)가 준거 변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보기 위하여 이러한 위계적 관계의 방정식을 비교하게 되며, 그 과정을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즉 추가되는 변수로 인한 R^2 증가분에 대한 F 검정을 통해서 추가적 변수들의 기여도가 유의한지를 판단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제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1.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효과 분석

가. 분석 방법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효과분석 대상은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를 시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표 3-8> 참조). 즉,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와 배치하지 않은 학교, ‘진로와 직업을 교과’로 채택한 학교와 채택하지 않은 학교, 진로활동실(예: 커

리어존, 독립 진로상담실, 공유 진로상담실)을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은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교육 시수가 평균 이상인 학교와 평균 이하인 학교를 비교 분석한다.

〈표 3-8〉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대상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분석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1,024(32.8)	2,010(88.7)
	비배치	2,099(67.2)	257(11.3)
‘진로와 직업’ 채택	채택	1,331(51.1)	844(46.9)
	미채택	1,273(48.9)	956(53.1)
진로활동실 설치	유	824(26.4)	1,019(45.0)
	무	2,299(73.6)	1,247(55.0)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교육 시수	평균 이하	1,091(44.2)	774(37.9)
	평균 이상	1,378(55.8)	1,269(62.1)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주: 1) ‘진로와 직업’ 채택 여부 중 교과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중학교 519개 교, 고등학교 467개 교).

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평균 시수는 중학교 38.9, 고등학교 55.3이다. 단, 시수가 ‘0’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중학교 731개 교, 고등학교 267개 교).

나. 분석 결과

1) 중학교

먼저 중학교 진로상담내용이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시행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자기 이해’에

대한 상담내용이 22.3%p나 더 많지만, ‘학업 관련 정보’는 17.0%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된 경우 학생들이 학업보다 본인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채택한 학교와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자기 이해’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학업 관련 정보’에 대한 상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교육 평균시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진로교육 평균시수의 증가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3-9〉 중학교 진로상담내용

(단위: %p)

구분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진학 관련 정보	7.2	-2.4	-3.9	1.2
자기 이해	22.3	3.9	5.4	-1.5
학업 관련 정보	-17.0	-1.6	-1.8	0.6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	2.5	1.5	-0.8	1.6
대인관계	-14.2	-0.9	1.0	-1.7
기타	0.0	-0.2	-0.3	-0.2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	-0.4	-0.2	0.1	0.2
학교폭력	-0.4	0.0	0.3	-0.1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주: 표 안의 수치는 (실행한 학교의 수치) - (실행하지 않은 학교의 수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시행한 비율과 평균 횟수는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시행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69.0%p나 더 많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시행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21.3%p 더 많이 시행하였고 평균횟수가 1.0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여부가 학부모 진로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담당 교사 확충이 필요하다.

〈표 3-10〉 중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시행 여부	21.3%p	8.8%p	69.0%p	6.0%p
평균 횟수	1.0회	0.2회	0.7회	0.3회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기관/프로그램 풀 및 직업인 강사 풀 확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체험기관/프로그램 풀은 13.4%p, 직업인 강사 풀은 15.3%p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체험기관/프로그램 풀은 7.7%p, 직업인 강사 풀은 10.1%p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진로교육 전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체험기관/프로그램 및 직업인 강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적극성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바, 진로교육을 위한 공간과 전담교사 배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1〉 중학교 진로교육 풀(Pool)

(단위: %p)

구분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체험기관/프로그램 풀	7.7	6.0	13.4	5.3
직업인 강사 풀	10.1	4.5	15.3	2.0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2) 고등학교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의 진로상담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기 이해’에 대한 내용이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학 및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중학생보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및 진로교육 평균시수 증가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12〉 고등학교 진로상담내용

(단위: %p)

구분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진학 관련 정보	-	-3.9	-1.5	-3.1
자기 이해	-	2.0	2.3	1.0
학업 관련 정보	-	0.4	-0.9	-0.5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	-	4.6	1.2	1.0
대인관계	-	-3.2	-1.4	0.8
기타	-	-	0.0	-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	-	-	-	-
학교폭력	-	0.4	0.3	0.6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이 88.7%에 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실시 비율이 12.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그 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취업 및 진학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진로교육을 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3-13〉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시행여부	-	2.1%p	12.0%p	1.2%p
평균 횟수	-	0.2회	0.5회	0.0회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이 88.7%에 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체험기관/프로그램 풀은 17.4%p, 직업인 강사 풀은 15.7%p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3.4%p, 15.3%p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차이가 난다. 진로교육 강화정책 4가지 중 유독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경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면 그곳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14〉 고등학교 진로교육 풀(Pool)

(단위: %p)

구분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교육 평균시수
체험기관/프로그램 풀	-	2.5	17.4	5.4
직업인 강사 풀	-	3.4	15.7	2.7

자료: 오호영 외(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원자료 분석

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이 88.7%에 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성과 분석

가.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학교알리미 자료(2012년)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14)의 학교조사 자료를 병합(merge)해 사용하였고, 진학/취업률과 학업중단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일반계, 자율계, 특성화,

14) 학교알리미와 진로교육성과 자료 각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제2절 연도별 비교 분석과 제3절 집단별 비교 분석 참조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분류하는 것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여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하였다(<표 3-15> 참조).

〈표 3-15〉 연관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

분류	변수	대상
종속 변수	학업중단율	중학교, 고등학교
	취업률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률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독립 변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여부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여부	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교육 여부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학교알리미 자료(2012년)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주: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교육 평균 배당 시수의 경우 전체 학생 수 대비 평균 배당 시수 비율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더 부합되나, 보다 효과적인 다변량 분산 분석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교육 여부 더미변수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다변량 분산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3-16> 참조).

〈표 3-16〉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종속변수			
학업중단율	0.8338(1.2123)	1.7804(2.2472)	4.0505(3.7287)
진학률	98.6581(3.3474)	78.3604(12.9690)	-
취업률	-	-	13.6780(12.8767)
독립 변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0.3281	0.8850	0.8860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0.5924	0.5580	0.6331
진로활동실 설치	0.2637	0.4493	0.4454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교육	0.8026	0.9173	0.8992
관측 수	3,196	1,695	570

자료: 학교알리미 자료(2012년)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취업이 주요 목적인 학교)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가독성을 위하여 결과 값과 유의수준 등의 한정적인 내용만을 제시하였다¹⁵⁾.

본 장에 제시된 다변량 분산분석은 교육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채로 실행되었으나, <부록 1>에서 교육 환경적 변수를 통제한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5) 더욱 유의미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정 계수(adjusted score)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2> 참조

나. 분석 결과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공분산 행렬에 대한 박스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다변량 분산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다(<표 3-17> 참조).

중학교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 경우와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경우 유의미한 결과 값을 가지고 있어 앞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진로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와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배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7〉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구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548	6.439**	3.892*
‘진로와 직업’ 채택 여부	.686	.437	.011
진로활동실 설치 여부	.344	7.447**	.54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시수 비중	1.017	.291	.463

자료: 학교알리미 자료(2012년)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주: ** 0.01, * 0.05 수준에서 유의함

제3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1. 진로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가. 분석방법

진로교육성과의 시계열 분석은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와 학교알리미의 동아리 활동 현황을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진로성숙도 연도별 누적 자료(2009~2012년)는 1년간의 진로교육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12월의 28,376개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닌 초등학생과 분석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무응답 및 미분류 총 4,542개의 표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3-18> 참조).

〈표 3-18〉 진로성숙도 검사 분석대상

(단위: 명)

	분석대상	원자료
2009년	4,775	7,315
2010년	6,477	8,407
2011년	6,510	6,520
2012년	6,072	6,134
합계	23,834	28,376

자료: 진로성숙도 검사 2009~2012년 12월 원자료 분석

주: 원자료 내의 초등학생, 미분류(99999로 코딩),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나.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검사의 각 지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류하여 분석

하며, 2009~2012년 동안 상승 추세에 있는 지표들과 하락 추세에 있는 지표들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3-19>, [그림 3-1] 참조).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을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시작된 해로 보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2011년 이전과 이후인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여 상승(+)과 하락(-)을 분류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지표는 하락하고 일부 지표는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의 차이가 평균 0.43점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2011년 이전에는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홍보강화, 진로상담교사의 권유 및 진로 교과 시간에 시행하는 등의 이유로 진로에 관심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감소하여 진로강화정책의 효과가 희석되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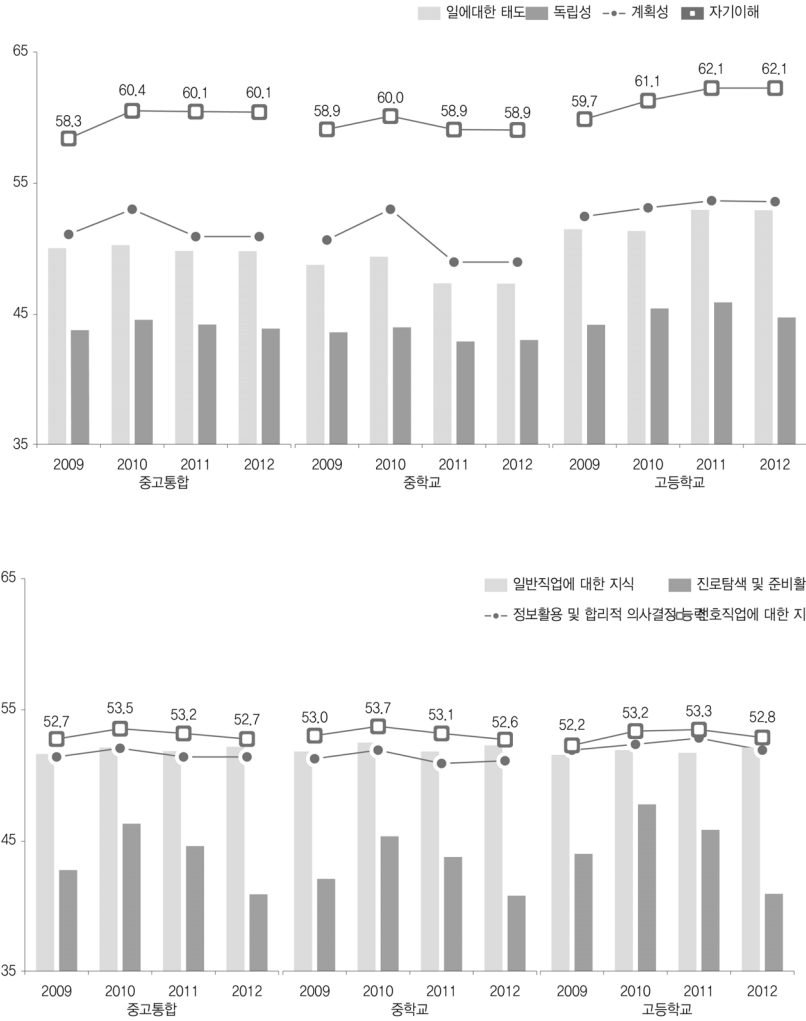
〈표 3-19〉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지표	중학생	고등학생
계획성	하락(-)	상승(+)
일에 대한 태도	하락(-)	상승(+)
자기 이해	하락(-)	상승(+)
독립성	하락(-)	하락(-)
정보활용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하락(-)	하락(-)
일반 직업에 대한 지식	하락(-)	상승(+)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	하락(-)	하락(-)
진로 탐색 및 준비활동	하락(-)	하락(-)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2010~2012) 분석

주: 진로성과 강화교육 이전과 이후인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하락과 상승을 표기함.

[그림 3-1] 진로성숙도 시계열 비교



* 연도별, 집단별 비교 분석은 <부록 2> 참조

학교알리미 자료에서 추출한 동아리 참여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모두 2010년보다 2012년에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중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20〉 동아리 참여율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p)

구분	동아리 참여율 증가
중학교	24.1
고등학교	19.7
일반계 고등학교	19.5
자율형 고등학교	19.8
특수목적 고등학교	27.0
특성화 고등학교	16.7

자료: 학교알리미 2010년, 2012년 자료 분석

주: 1) 2010년 고등학교 분류 156개 결측 존재

2) 동아리 참여율은 (동아리 참여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 100

2.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가. 분석방법

분석 대상은 중학교 2010년 3,130개 교, 2012년 3,186개 교, 고등학교 2010년 2,113개 교¹⁶⁾, 2012년 2,299개 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16) 2010년 학교알리미 자료 고등학교 분류 변수에 결측이 156개가 있어 실제 분석에 사용된 고등학교는 2,113개교임.

일반계 고등학교 / 자율형 고등학교 / 특수목적 고등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총 4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3-21> 참조).

〈표 3-21〉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대상

(단위: 개 교)

	2010년	2012년
중학교	3,130	3,186
고등학교	2,269	2,299
일반계 고등학교	1,398	1,563
자율형 고등학교	73	115
특수목적 고등학교	119	126
특성화 고등학교	523	495

자료: 학교알리미 2010년, 2012년 자료 분석

주: 2010년 고등학교 분류 156개 결측 존재

본 연구에서 학교알리미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학교교육성과는 학업중단율과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였다.

〈표 3-22〉 학교알리미 자료 내 학교교육성과 지표

분류	학교성과
학교교육성과	- 학업중단율 - 진학률 (일반계고) - 취업률(전문계고)

나. 분석 결과

학교교육성과의 하나인 학업중단율의 경우 해외에서는 중요한 지표

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상 학업중단률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시계열 분석 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 시행전후의 격차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진학률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문대,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분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문대 진학률과 취업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높아 4년제 대학 진학의 장점(merit)이 감소함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일반 시계열 분석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진로교육 강화정책으로 인한 효과에만 기인하여 4년제 대학 진학이 아닌 각자의 진로를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대 진학률이 14.2%p, 취업률은 37.7%p, 4년제 대학 진학률도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와 대학 진학률은 진학보다는 취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취업률이 대폭 하락한 것은 2012년 취업률이 1.3%로 매우 낮게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취업률이 이처럼 과소계상된 것은 2010년에는 523개 교를 조사하였으나 2012년에는 28개 교가 감소한 495개 교만을 조사하였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학교 수가 많지 않아 조사 대상 28개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3-23〉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p)

	학업 중단률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취업
중학교	0.5	-	-	-
고등학교	-0.1	-2.9	-1.8	-11.2
일반계 고등학교	0.1	1.4	-1.2	1.9
자율형 고등학교	-0.1	0.6	1.5	-0.4
특수목적 고등학교	0.0	-2.9	-1.6	-15.9
특성화 고등학교	0.0	-14.2	-7.6	-37.7

자료: 학교알리미 2010년, 2012년 자료 분석

- 주: 1) 2010년 고등학교 분류 156개 결측 존재
 2) 학업중단율 (학업 중지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100
 3) 국외전문대학과 국외 4년제 대학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4) 진학률은 (진학한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100
 5) 취업률은 (취업한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100

제4절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연관성 분석

1. 분석방법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알리미(2012년) 자료와 학교진로교육지표(2012년)¹⁷⁾의 학교조사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17) 학교알리미와 진로교육성과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제2절 연도별 비교 분석과 제3절 집단별 비교 분석 참조

모형1에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평가 등급, 지역 규모, 전체 학생 수, 진로교육 편성 여부와 금액, 비정규 입학생 비율, 학비 감면 인원 비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동아리 비율, 방과 후 학교 연간지원총액 비율¹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2에는 진로교육 운영 유형 중 심리검사, 진로활동, 체험활동 여부 변수와 교사의 진로상담 건수, 교사가 상담한 평균 시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시행여부, 학생들의 동아리 참여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사용된 학교교육성과는 학업중단율과 취업/진학을 이며, 분석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¹⁹⁾하여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24>와 같다.

18) 위계적 회귀분석에 사용된 ‘비율’ 변수들은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함. 즉,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임.

19) 제2절 진로교육 강화정책 분석 중 ‘2.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성과 분석’에서와 같은 이유로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함.

〈표 3-24〉 위계적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평균(S.D.)	평균(S.D.)	평균(S.D.)
모형1에 사용된 변수			
소속 시도교육청 - 진로교육평가 상	0.290	0.297	0.156
소속 시도교육청 - 진로교육평가 중	0.614	0.615	0.781
소속 시도교육청 - 진로교육평가 하	0.096	0.087	0.063
지역 규모 - 농어 산촌	0.333	0.226	0.672
지역 규모 - 중소도시	0.277	0.369	0.281
지역 규모 - 대도시	0.389	0.405	0.047
전체 학생 수	636.170 (415.063)	956.586 (451.392)	629.875 (396.213)
진로교육 예산 - 편성 여부	1.000	1.000	1.000
진로교육 예산 - 액수	79,609.191 (1,013,310.754)	64,096.775 (559,536.483)	63,994.971 (305,236.843)
비정규 입학생 비율	0.163 (1.355)	0.747 (1.617)	1.022 (1.305)
학비감면 인원 비율	0.827 (11.819)	64.230 (49.600)	100.572 (95.429)
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3.148 (5.849)	3.485 (4.006)	4.037 (2.794)
학생 수 대비 동아리 수	3.165 (5.247)	3.455 (3.481)	3.994 (2.939)
방과후학교 연간지원금액 비율	16,549,529.016 (35,453,702.02)	12,483,925.951 (20,993,109.88)	12,922,653.088 (17,933,993.33)
모형2에 사용된 변수			
진로교육 운영 유형 - 심리검사	0.981	0.983	0.984
진로교육 운영 유형 - 진로활동	0.868	0.951	0.938
진로교육 운영 유형 - 체험활동	0.869	0.717	0.688
교사 진로상담 건수	70.052 (119.822)	59.785 (414.073)	63.292 (98.876)
교사 평균 상담 시간	1.780 (3.901)	1.413 (2.584)	1.982 (1.89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시행 여부	0.784	0.825	0.828
동아리 활동 현황 (학생의 동아리 참여율)	229.681 (284.661)	525.541 (444.219)	333.172 (310.893)
관측 수	3,196	1,695	570

자료: 학교알리미(2012) 자료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2. 분석 결과

가.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해외에서는 학교교육성과 중 하나로 중요하게 분석되고 있는 지표로, 국내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교육성과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낙 학업중단율 자체가 낮아 양적 분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은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등급, 지역 규모, 방과 후 학교 연간 지원 금액 비율 등의 몇몇 지표가 산발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비정규 입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등급이 상이면 하일 때보다 학업중단율이 낮아져, 진로교육성과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지역 규모가 대도시이면 농어·산촌보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유학 등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 값이 0.001로 크지 않았고, 학생 수가 많으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비정규 입학자 비율 변수와 상수 이외의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학업중단율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모형1				
상수		0.732***	2.727***	4.047***
시도교육청 하 대비	시도교육청_상	-0.208***	-0.097	0.539
	시도교육청_중	-0.006	0.123	-0.368
지역 규모 소도시 대비	지역 규모_대도시	0.225*	0.012	0.000
	지역 규모_중소도시	0.038	-0.360	-0.389
전체 학생 수		0.000	-0.001***	-0.001
예산 총액 비율		0.000	0.000	0.000
비정규입학자 비율		0.366***	0.371***	1.011***
학비 감면 인원 비율		0.001	0.003	0.002
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0.004	-0.011	-0.057
동아리 비율		-0.011	-0.027	-0.121
방과후 학교 연간 지원 금액비율		0.000*	0.000***	0.000
모형2				
상수		1.051***	3.015***	2.373
시도교육청 하 대비	시도교육청_상	-0.199**	-0.083	0.477
	시도교육청_중	-0.012	0.162	-0.304
지역 규모 소도시 대비	지역 규모_대도시	0.241**	0.047	-0.016
	지역 규모_중소도시	0.056	-0.313	-0.441
전체 학생 수		0.000	-0.001***	-0.001
예산 총액 비율		0.000	0.000	0.000
비정규입학자 비율		0.366***	0.357***	1.017***
학비 감면 인원 비율		0.001	0.002	0.002
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0.004	-0.010	0.024
동아리 비율		-0.013	-0.028	-0.100
방과후 학교 연간 지원 금액비율		0.000	0.000***	0.000

<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진 로 교 육 운 영 실 적	진로 관련 심리 검사 여부	-0.282	-0.243	1.003
	진로활동 운영 여부	0.041	-0.256	0.357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0.093	0.079	-0.191
	교사진로상담 건수비율	0.000	0.000	0.000
	교사진로상담시간비율	0.016	0.078	-0.019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여부	-0.077	-0.029	0.460
	동아리 참여 학생 비율	0.000	0.000	-0.002
R ²	모형1	0.198	0.183	0.283
	모형2	0.204	0.190	0.296

자료: 학교알리미(2012)자료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 주: 1) 소속 시도교육청의 2012년 진로교육 평가 등급 등급 더미는 중이며, 지역 규모 더미의 기준변수는 농어·산촌입
- 2) 모형1의 진로관련 심리검사, 진로활동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사 진로상담 건수, 교사 평균 상담 시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동아리 참여 학생 수가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
- 3) *** 0.01, ** 0.05,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나. 진학률/취업률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률을, 일반계 고등학교는 국내외 전문대·4년제 대학 진학률을,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평가 등급이 ‘상’일 때에 ‘하’인 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과 취업률이 높았던 반면, 중학교의 경우 진학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을 잘 시행하였을 경우 고등학교는 바로 진학 및 취업에 직결되지만, 중학생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진학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유

학, 연수 등의 다양한 옵션(option)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 입학자 비율이 높을수록 중학교는 진학률이 높아졌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비정규 입학자가 학과내용을 따라가기가 중학교와 비교하면 더 힘들고, 대학교는 진학의사 표시만으로 진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학능력시험 등 진학을 위한 관문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에서의 고등학교 진학은 도시 대다수에서 고등학교 진학고사가 폐지되어 정규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진학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소속된 시·도교육청이 진로교육 평가 상위권일 때,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형 2에 진로교육 운영실적을 투입함으로써 취업률의 R^2 가 0.1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별적인 진로교육 운영실적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통합적으로는 취업률 분산의 13%를 설명한다.

〈표 3-26〉 진학률/취업률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일반계 (진학률)	전문계 (취업률)
모형1			
상수	0.732***	79.790***	9.505
시도교육청_상 하 대비	-0.208***	8.279***	15.017**
시도교육청_중	-0.006	1.528	-6.116
지역 규모_대도시	0.225*	-3.102	5.826
소도시 대비	0.038	4.631***	3.569
지역 규모_중소도시			
전체 학생 수	0.000	-0.006***	-0.006
예산 총액 비율	0.000	0.000	0.000
비정규입학자 비율	0.366***	-0.662**	1.077
학비 감면 인원 비율	0.001	0.025**	0.036
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0.004	-0.128	-0.437
동아리 비율	-0.011	0.312	0.266
방과후학교 연간 지원 금액 비율	0.000*	0.000	0.000
모형2			
상수	1.051***	76.496***	8.968
시도교육청_상 하 대비	-0.199**	7.998***	12.976**
시도교육청_중	-0.012	1.486	-3.073
지역 규모_대도시	0.241**	-3.286**	1.285
소도시 대비	0.056	4.398***	1.891
지역 규모_중소도시			
전체 학생 수	0.000	-0.006***	-0.011
예산 총액 비율	0.000	0.000	0.000
비정규입학자 비율	0.366***	-0.618*	2.913
학비 감면 비율	0.001	0.025**	0.043
동아리 참여 교사 비율	-0.004	-0.102	-1.996
동아리 비율	-0.013	0.436	0.757
방과후학교 연간 지원 금액 비율	0.000	0.000*	0.000

<표 계속>

구분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일반계 (진학률)	전문계 (취업률)	
진로 교육	진로 관련 심리 검사 여부	-0.282	-0.535	10.139
	진로활동 운영 여부	0.041	3.396	-5.029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0.093	0.529	8.655
운영 실적	교사진로상담 건수비율	0.000	0.000	-0.040
	교사진로상담시간비율	0.016	-0.427	-1.88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여부	-0.077	0.561	0.903
	동아리 참여 학생 비율	0.000	-0.002	-0.003
R ²	모형1	0.198	0.274	0.318
	모형2	0.204	0.283	0.448

자료: 학교알리미(2012) 자료와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를 병합한 자료 분석

- 주: 1) 소속 시도교육청의 2012년 진로교육 평가 등급 기준더미는 중이며, 지역규모 더미의 기준변수는 농어·산촌입
 2) 모형1의 진로 관련 심리검사, 진로활동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사 진로상담 건수, 교사 평균 상담 시간,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동아리 참여 학생 수가 분석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3) *** 0.01, ** 0.05,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제5절 소 결

진로교육성과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시행 이후 최소 3~5년 이상이 지나야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아직 양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미흡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절에서는 진로교육 강화정책²⁰⁾의 효과를

20) 본 연구에서 지정한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활동 평균 시수-을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하였고, 제3절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를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4절에서는 미흡하지만,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대 진로교육 강화정책 중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학업에 대한 단순 정보가 아닌 자기 이해나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특히 성과지표 이외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연관성 분석에서는 학교교육성과를 학업중단율과 진학률/취업률로 한정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학업중단율이 워낙 저조하여 비정규 입학자가 많을 때 학업중단율이 높아진다는 것 이외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분석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율보다 유의미한 변수가 더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고등학교 진학률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교 진학률 분석에서는 비정규 입학자 비율과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진로평가 등급 변수에서 정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진로평가 등급이 높으면 진학률이 낮았고, 비정규 입학자의 비율이 높으면 진학률이 높았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진로평가 등급이 높으면 진학률이 높고, 비정규 입학자의 비율이 높으면 진학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보다 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며, 비정규 입학자가 따라가기에 교육 과정이 더욱 어렵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부족하나마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자료 및 변수의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조사된 지표들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시행하다 보니 모형으로는 설계하였으나, 그 중 실제로 사용 가능한 변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진로교육성과의 경우 진로교육 만족도(satisfaction)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가 필요하지만, 해당 지표의 자료는 진로교육지표조사의 학생 조사에서만 수집되고 있다. 2012 한국진로교육지표의 학생 조사는 무작위로 학교를 선별하기는 하였으나, 선별된 모든 학교가 응답한 것은 아니었던 탓에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학생 조사를 통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교육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하려고 하는 지표가 매년 조사되어야 하는데, 진로교육지표의 경우에는 매년 표집 방법, 문항, 응답방식 등에 변경이 있었다. 물론,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문항은 삭제 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틀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하여, 향후의 시계열 분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의 경우에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이 직접 온라인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초변수, 특히 개인특성변수를 부정확하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분류(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지역, 성별, 학교 유형(일반계, 특수 목

적, 특성화 등) 등의 분류는 불가능하였다. 검사가 쉬운 온라인 응답방식은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개인특성변수만이라도 정확히 응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학교명-학교분류가 다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거나, 에듀팍과 연동하여 학교명이 명확히 확인된 학생의 검사 결과에 대해 플래그(flag)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분석에 필요한 지표 자료가 여러 조사에 분리되어 있고, 학교 고유식별번호²¹⁾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 자료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학교명이 실명으로 공개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학교명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는 교육부 밖으로 유출될 수 없어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환경 등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된 학교알리미의 학교교육성과 지표(학업중단율, 진학률, 취업률)는 현 교육정책이 학교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교육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정책 입안 시 교육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 정책의 목표가 명확할 때, 후속연구가 진로교육 정책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따라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를 선정하고, 연관성 분석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1) 학교 고유식별번호란 학교명이 실명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다른 자료끼리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병합(merge)할 수 있게 하는 기준변수(key variable)를 의미함.

제4장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질적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별
비교 및 중점교/비중점교 분석:
진로진학상담교사

제3절 학교 유형별 분석: 타교과교사 및
학생

제4절 소 결

제4장 |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 질적 분석

본 장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되었던 양적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먼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소속 교육청의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중점교-비중점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진로활동실 설치 여부에 따라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에도 타교과교사와 학생들을 추가로 면담하여 질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소속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등급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미약하기는 하나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내용

본 장에서는 제3장의 양적 분석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의 한계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다룬다. 조사 대상은 진로진학상담

교사, 타교과교사 및 학생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따른 소속 교육청의 등급, 재직학교가 소속 교육청의 중점교인가 비중점교인가에 따라 분류하여 FGI를 시행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한 후, 진로교육 활동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점교/비중점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비배치 교, 진로활동실 중 커리어존 유/무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실행하고자 기존 FGI 대상학교 중 3개 교와 추가 3개 교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타교과교사, 학생 면담을 시행하였다.

〈표 4-1〉 지역별 면담 일정

지역	일정	비고	계	면담 대상
대전	4월 12일	상위권 교육청 소속	6개 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전·강원·인천의 각 1개 교에서는 타교과교사/학생면담 시행)
강원	4월 19일	중위권 교육청 소속	3개 교*	
인천	4월 22일	중위권 교육청 소속	3개 교*	
전북	5월 22일	하위권 교육청 소속	6개 교	
전북	6월 4일~5일	커리어존 유/무	2개 교	진로진학상담교사/타교과교사·학교관리자/학생
강원	6월 18일	진로진학상담교사 비배치 교	1개 교	타교과교사/학생
계			21개 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면담은 진로교육 환경,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후 변화, 진로교육 운영 성과, 학교교육 성과,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부록 3> 참조). 그리고 타교과교사에게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 변화,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의견 및 협력 내용, 진로교육의 제고를 위한 개선점 등을 질문하였고, 학생에게는 진로 정보 출처, 참여해 본 진로교육 프로그램, 원하는

진로 정보 및 진로교육 활동 등을 질문하였다(<표 4-2> 참조).

위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먼저 제2절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FGI 및 면담 내용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에 따른 학교별 분석과 중점교 여부에 따른 분석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타교과교사 및 학생 면담 내용을 중점교 여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커리어존 설치 여부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시행한다.

<표 4-2> 대상별 면담 내용

대상	주제	세부 내용
진로진학상담교사	면담교사 확인사항	• 진로진학상담교사 지원 동기·담당 업무 등
	진로교육 환경	• 학교 및 학생의 환경 및 진로교육 여건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후의 변화	•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변화, 학교장·학생·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변화 등
	진로교육 운영 성과	• 진로교육 운영 현황,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변화 등
	학교교육 성과	•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진로교육의 성과가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한 개선사항 등
	정책제안	• 진로교육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정책 제안
타교과교사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 변화	• 진로교육내용 및 질, 학생, 학부모 등의 변화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 진로진학상담교사 필요 정도, 배치 수에 대한 의견, 현재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에 대한 만족도
	진로교육 협조	•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업무 협력 내용,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행여부,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 지원 애로사항
	진로교육 제고를 위한 제언	•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교감/기타교과교사들의 지원
학생	진로 관련 정보나 도움 관련	• 진로정보 출처, 얻고자 하는 진로 정보나 도움
	진로교육 활동	• 참여해본 진로교육 활동, 참여하고 싶은 진로교육 활동
	진로 고민 관련	• 진로에 대한 고민 정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된 정도
	진로교육을 통해 변한 점	•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변한 점과 느낀 점
	진로교육에 바라는 점	• 학교 진로교육 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제공했으면 하는 요구 사항

2. 분석 기법

본 연구를 위해 FGI와 유형별 학교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질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기법은 학교 유형별 비교에 따라 유형화 분석 (typologic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중점교-비중점교,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 학교 유형 등 FGI와 유형별 면담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고려된 주제를 활용한 분석을 먼저 실행하였다. 그리고 기존 주제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 자료를 분류하였다. 즉, 연역적 서식 분석(deductive template analysis)과 귀납적 주제 분석(inductive thematic analysis)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 접근(Fereday & Muir-Cochrane, 2006)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제2절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등급별 비교 및 중점교/비중점교 분석: 진로진학상담교사

먼저 2012년도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서 상·중·하위권 시·도 교육청 중 각 1곳의 교육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행한 FGI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는 해당 교육청의 중점교와 비중점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FGI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당초 계획은 해당 교육청마다 중점교 3개교와 비중점교 3개교를 추천받아 FGI를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중위권 시·도 교육청에서는 비중점교 교사의 모집에 어려움이 따른 탓에 중위권 시도교육청만 2개 지역을 선발하여 비중점교를 제외하고 중점교 3개교씩에 대해서만 FGI를 실행

하였다. 여기에서는 유형별 분석을 위해 추가한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의견을 포함하며,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한 진로교육의 개선점에 관한 내용은 <부록 4>에 제시한다.

〈표 4-3〉 FGI 시행대상(진로진학상담교사)

구분	상위권 교육청 소속		중위권 교육청 소속				하위권 교육청 소속				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중점교 여부		커리어존 유/무		
중점교	A교	CT ₁	G교	CT ₇	K교	CT ₁₀	N교	CT ₁₃	-		
	B교	CT ₂	H교	CT ₈	L교	CT ₁₁	P교	CT ₁₄			
	C교	CT ₃	I교	CT ₉	M교	CT ₁₂	R교	CT ₁₅			
비중점교	D교	CT ₄					S교	CT ₁₆	Y교	CT ₁₉	
	E교	CT ₅	-	-	-	-	V교	CT ₁₇	Z교	CT ₂₀	
	F교	CT ₆					W교	CT ₁₈	-		
계	6개교		3개교		3개교		6개교		2개교		20개교

주: 1) CT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약자임.
 2) 고등학교와 중학교, 일반학교와 취업중점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차이 파악을 위해 각 면담조사마다 일반고/특성화고/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함께 FGI 진행하였음.
 3) Y교와 Z교는 각각 커리어존 설치교 및 미설치교임. 이 학교들은 유형별 분석을 위해 추가한 학교로서, 해당 진로진학상담교사 면담내용은 하위권 교육청 소속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분석내용에 포함하였음.

1. 진로교육 평가 등급별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교

가.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수행 만족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역할 수행 만족도는 소속 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등급이 상위권, 중위권, 또는 하위권이냐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권 교육청 소속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업무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등 매우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비해, 다른 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소속감이 없다고 느끼거나, 업무량이 많고 환경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심지어 일반교과교사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하위권 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진로교육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상담을 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A교 CT₁교사(상위권 교육청)). 매우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진로진학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교 CT₂교사(상위권 교육청))

중학교라 진학과 취업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알아보고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공부와 고민 등을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어 좋은데, 이는 교과목 시험이나 수행평가가 없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교 CT₃교사(상위권 교육청)).

예전에 교과목을 가르칠 때는 소속이 있었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이상하게 소속이 없는 것 같고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한 애착은 없는 것 같습니다(G교 CT₇교사(중위권 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이후 업무를 재미있게 수행했지만 갈수록 업무량이 폭주하여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족도가 10(만점), 9, 8, 7, 6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P교 CT₁₄교사(하위권 교육청)).

업무 추진에 대한 동료교사의 협조 부족, 진로체험 장소 선정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 초창기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맡은 바 업무 수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희망한다고 들었는데 일반교과교사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교 CT₁₅교사(하위권 교육청)).

나. 진로교육 운영 성과

조사 대상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대부분 진로교육성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들었다. 진로교육

후에 학생들은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본인의 흥미, 성취, 영향력 발휘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상위권과 하위권 교육청에 소속된 각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진로성숙도가 향상되어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진로교육정책 도입 이전보다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몇 년 전 제가 맡았던 학생 중 한 명이 금전적인 형편 때문에 인문계고교에 진학할 수 없어 대전공고에 보냈는데,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 진로를 고려해 고등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진로’에 초점을 맞춰 학급경영을 해보니깐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아직 인문계고 진학을 선호하던 분위기였는데, 3학년 전체 학급에서 저희 반만 12명이나 특성화고에 진학했습니다. 지금도 고3이 된 그때 아이들이 만족도가 좋고 오길 잘했다며 연락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로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F교 CT₆교사(상위권 교육청)).

작년 한국 잡월드에 직업체험을 갔습니다. 잡월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잡월드 방문 이후 자동차고(특성화고)에 4명이 진학했습니다. 학생들은 특성화고가 주변에 없고 정보가 많이 없으므로 무조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진학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W교 CT₁₈교사(하위권 교육청)).

진로교육정책 도입 이전에는 학생·학부모가 학업 성과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진로나 직업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자기 관심 분야를 찾아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이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서 본인 성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Y교 CT₁₉교사(하위권 교육청)).

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알기는 아직 어렵지만, 일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두 성과에 연관성이 있음

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위권 교육청 소속의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평가에 포함되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를 학교 성과표 자료에 첨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권 교육청 소속의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학업 성과로 연결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자기 이해도와 관련해서는 진로 심리검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생활태도 면에서는 원래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좋았던 학교이거나 신입생들의 질적 향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교육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대체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 학업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교육을 어떻게 잘했다’는 학교 성과표 자료를 만들 때, 꼭 진로교육에 관한 성과(eg.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학력 신장이 이루어졌다 등)를 첨부하는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B교 CT₂교사(상위권 교육청)).

OO시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평가에 포함되게 합니다(C교 CT₃교사(상위권 교육청)).

학업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불분명하지만, 진로활동을 통해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적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진로교육을 토대로 한 서류·활동 비중이 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L교 CT₁₁교사(중위권 교육청)).

◦ 자기이해

각종 심리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현재 진로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N교 CT₁₃교사(하위권 교육청))

자기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로교육 이전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A교 CT₁교사(상위권 교육청)).

◦ 생활태도

일탈 행동 감소의 경우, 2011년도에 제가 배치되었고 2012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퇴학이나 자퇴율이 매우 크게 줄어든 편입니다. 기존에는 만약 A과에 입학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A과 공부/진로가 맞지 않으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로교육을 통해 꼭 자퇴가 아니어도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기만 해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전기과로 입학했지만 요리 쪽으로 취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마찰이 심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관련 학과로 진학해야만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며 전기과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어 극단적인 방법(자퇴)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K교 CT₁₀교사(중위권 교육청)).

진로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왜 다니는지, 학교와 진로의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특정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나의 진로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었고, 이를 통해 수업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폭력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선생님들과 관리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M교 CT₁₂교사(중위권 교육청)).

학생들의 생활태도는 원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진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이러한 것을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C교 CT₃교사(상위권 교육청)).

인문계 학교 특성으로 학생들의 생활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표면적인 행태로는 알기 어렵습니다(P교 CT₁₄교사(하위권 교육청)).

같은 아이들을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태도 면에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진로교육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일탈행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Z교 CT₂₀교사(하위권 교육청)).

라. 진로교육성과가 학교교육 성과에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생각하는, 진로교육성과가 학교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소속 교육청의 진로교육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1년~10년으로 다양했다. 가장 많이 응답한 기간은 3년이였다. 일부 상위권 교육청 소속의 일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통해 진정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면담 대상 학교 중 진로교육이 가장 잘 되는 상위권 교육청 소속의 중점교와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하위권 교육청 소속의 비중점교의 일부 교사들이 1년~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중점교/비중점교,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등급에 따른 유형 구분과 무관하게 교사들이 각각 다른 기간을 제시한 것은 아직 진로교육 성과가 학교교육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3년, 5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P교 CT₁₄교사(하위권 교육청)).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제대로 인식하여 교육에 반영한다면 그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교 CT₁₅교사(하위권 교육청)).

지역 특성상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이 점점 떨어지고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Y교 CT₁₉교사(하위권 교육청)).

1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의 진로교육을 받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신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교 CT₂교사(상위권 교육청)).

진로상담 후 고맙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보통 30살이 넘는데, 이처럼 진로교육이 '성과'로 나타나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진로 지도 후 1년만 지나도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은 잘 모르고 효과도 바로 안 나타납니다. 즉, 진로 지도 효과는 하루아침에 혹은 1-2년 만에 나타나기보다는,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D교 CT₄교사(상위권 교육청)).

2. 중점교와 비중점교 비교

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후 변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후의 학생, 학부모, 타교과교사 및 학교장의 변화에 대한 의견은 중점교 및 비중점교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의견으로는 대체로 학생들과 타교과교사 및 학교장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후에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학부모들은 생업에 바빠다 보니 자녀 진로교육에 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진로교육보다는 대학 진학에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진로 심리검사의 시행 및 해석, 직업 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W교 CT₁₈교사(비중점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은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또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설계를 하면서 학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학생들도 많습니다(V교 CT₁₇교사(비중점교)).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E교 CT₅교사(비중점교)).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생업에 바빠다 보니 학부모 교육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학교에 다 맡깁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습니다(P교 CT₁₄교사(중점교)).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 보니 학부모회 구성도 어려운 상태입니다(F교 CT₆교사(비중점교)).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로보다는 대학 진학입니다(E교 CT₅교사(비중점교)).

나.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에 미친 영향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진로교육이 학업, 자기 이해, 생활태도 등의 학교교육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수치화된 자료로 그 영향 정도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비중점교의 경우 수업 분위기가 향상되었다거나 진로 선택의 폭을 인문계고에서 특성화고까지 넓히는 등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점교의 경우에도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개인의 진로성숙도에 따라 그 영향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원래 학교교육 성과가 높은 경우가 많아 진로교육으로 인한 학교교육 성과를 뚜렷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저희 학교는 인문계고이고 성적이 상위 3~4%부터 하위 99%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속에서 진로교육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학급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학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목표 의식이 조금씩 생겨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으로 갈수록 성적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타교과 선생님들도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V교 CT₁₇교사(비중점교)).

전에는 무조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진학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W교 CT₁₈교사(비중점교)).

학업성취도에는 진로교육보다 학생들의 진로 발달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비교적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낮은 학생들 경우 오히려 일찍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진로성숙도와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보통 전북대 진학을 원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낮아 사립대를 가야 하면 비싼 학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대를 못 간다면 전문대를 가거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진학을 생각해야 하는데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가 없으면 일찍 포기하게 됩니다(P교 CT₁₄교사(중점교)).

학업성취도가 전국 100위 안에 드는 최중점교이기 때문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전, 이후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C교 CT₃교사(중점교)).

제3절 학교 유형별 분석: 타교과교사 및 학생

본 절에서는 타교과교사 및 학생에 대해 중점교/비중점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비배치 교, 그리고 커리어존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 유형별 분석에 특별히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적용한 이유는 중점교/비중점교를 통해 학교관리자의 진로마인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비배치 교를 통해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고, 커리어존 유/무를 통해 공간적 자원이 확보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를 보고자 함이었다.

〈표 4-4〉 유형별 비교 분석 대상(타교과교사, 학생)

구분	중점교 여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커리어존 유/무		계
해당	L교	T ₁	I교	T ₃	Y교 (추가)	T ₅ (교장)	-
		S ₁		S ₇		T ₆ (교감)	
		S ₂		S ₈		T ₈	
		S ₃		S ₉		S ₁₃	
비해당	E교	T ₂	J교 (추가)	T ₄	Z교 (추가)	T ₇ (교감)	-
		S ₄		S ₁₀		T ₈	
		S ₅		S ₁₁		S ₁₅	
		S ₆		S ₁₂		S ₁₆	
계	2개교		2개교		2개교		6개교

주: T는 타교과교사(학교관리자 포함), S는 학생의 약자임.

1. 중점교와 비중점교 비교

가. 타교과교사 면담 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에 중점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진로상담이나 교과수업 외에도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비중점교는 진로상담에 중점을 두어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비중점교 교사들은 진로상담을 위한 공간이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점교 교사들은 예산의 문제가 크지 않고 핵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해 중점교와 비중점교의 인프라의 차이가 큼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실질적인 진로 탐색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L교 T₁교사(중점교 소속)).

통계자료, 각종 검사자료를 통한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시행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상담의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는 학급수가 많아 유휴교실이 없어 진로진학상담실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 학부모의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E교 T₂교사(비중점교 소속)).

중점교와 비중점교의 타교과교사가 생각하는 진로교육 강화 정책 이후의 변화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의 가장 달라진 면으로는 수업태도를 꼽았으며,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학부모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점교와 비중점교의 타교과교사

의 의견이 달랐다. 중점교의 타교과교사는 학부모들이 제도의 변화를 가장 늦게 접하므로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가 적은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비중점교의 타교과교사는 학부모들이 이전보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대답하였다. 비중점교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학교 측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상담에 대해 얼마나 잘 알리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추론된다.

진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학생들은 수업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전반적인 향상이 보인다. 반면, 학부모들은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변화에 대해 가장 늦게 접하다 보니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변화도 늦은 편인데 진로교육 활동을 일회성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교 T₁교사(중점교 소속)).

전에는 진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학생의 적성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자녀의 진로를 강요하여 갈등을 일으키던 부모들이, 학교에 전문교사, 즉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음을 알고 학교에 내방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E교 T₂교사(비중점교 소속)).

나. 학생 면담 결과

비중점교 학생들은 진로 관련 정보나 도움을 얻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진로진학상담교사뿐 아니라 담임교사, 부모, 친구, 직업진로정보전문 인터넷 사이트, 친구 등 다양한 대답을 하였고, 중점교 학생들은 대체로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범위를 한정하여 대답하였다. 이로 보아 중점교 학생들의 진로 정보는 진로진학상담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비중점교 학생보다 확고한 편이며,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담임선생님, 진로 교과 선생님께도 진로에 대해 상의하고 친구들과하고도 진로 얘기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의논드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편입니다(비중점교 E교 1학년 S₄학생).

진로 선생님께 상담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진로에 관해 얘기하였고 선생님들께는 상의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진로 고민이 생기면 주로 진로선생님을 찾아가합니다. 특정 진로에 대해 권하시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관해 얘기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중점교 L교 2학년 S₂학생).

진로교육 관련 참여 활동 종류는 중점교 학생들과 비중점교 학생들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직업체험, 직업인 특강, 대학체험/산업체 견학 등의 체험이나 특강은 중점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점교 학생들은 일반교과수업 중에도 진로교육 활동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진로검사, 창의적 체험활동 중 일부 진로교육 활동, 진로상담은 해보았으나 진로캠프, 대학체험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이 직업체험과 직업인 특강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저희 3학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비중점교 I교 3학년 S₉학생).

그러나 진로교육을 통해 변한 점에 대해서는 중점교 학생들과 비중점교 학생들의 대답이 대동소이하였다. 공통적인 대답은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로탐색을 하게 되었고, 공부목적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대답과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이 혼재되어 있어, 진로교육이 학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진로교육을 받고 나서 진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진로 교과 시간에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성적 결과에 따라 자신감이 많이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좀 더 저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목표에 계속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비중점교 E교 3학년 S₆학생).

학교에 다니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교실에서의 공부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인내심·담구심·협동심 등의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로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시험 등수가 오른 것 같았습니다(중점교 L교 3학년 S₃학생).

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 및 비배치 교 비교

가. 타교과교사(학교관리자 포함) 면담 결과

진로교육 및 성과와 관련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와 비배치 교의 타교과교사의 응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타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 강화정책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학생은 아직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에 큰 기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여 한두 시간 진로 교육을 받았다고 학생들이 금방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꾸준히 가이드 역할을 한다면 조금씩 변화하리라 생각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자녀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큰 기대를 안하시는 편입니다(I교 T₃교사(배치 교 소속)).

‘진로와 직업’ 수업은 성적부담이 없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적극적이며 좋습니다(J교 T₄교사(비배치 교 소속)).

그런데 진로교육 내용과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협력 내용에 대해서

는 배치 교 교사가 더 상세히 대답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만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의 진로교육이 가시적인 면이 더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직업인 특강, 직업체험, 진로탐색발표대회 및 진로 교과 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행사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이 강사초빙, 학생들 분야별 조사 및 인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1교 T₃교사(배치 교 소속)).

나. 학생 면담 결과

학생들 면담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가 비배치 교보다 진로교육 활동 종류의 수가 1.5배 정도 많고, 배치 교 학생들은 개인별로 경험해 본 진로교육 활동의 종류가 비슷했지만, 비배치 교 학생들은 학년별 체험 활동 종류의 수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배치 교 면담 대상 학생들 모두 진로상담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할 기회가 거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진로검사,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수업, 직업체험, 진로캠프, 일반교과수업 중 진로활동 등을 해보았습니다(J교 2학년 S₁₁학생(비배치 교 소속)).

저는 진로검사와 진로캠프에만 참여해보았습니다(J교 1학년 S₁₀, 3학년 S₁₂학생(비배치 교 소속)).

배치 교 학생이든 비배치 교 학생이든 진로교육에 대해 비슷한 고

민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 가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비배치 교 학생의 경우 ‘특정 진로에 대해 준비해야 할 일’, ‘원하는 진로의 정보’ 등으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배치 교 학생은 ‘변호사 진로정보’, ‘동물사육사에 대한 진학 정보’ 등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배치 교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인 진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되려면 어떠한 진로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도 변호사 직업체험을 실제로 해보고 싶습니다(I교 1학년 S₇학생(배치 교 소속)).

저는 동물사육사에 대한 진학(고교, 대학, 유학)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육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I교 2학년 S₈학생(배치 교 소속)).

배치 교 학생과 비배치 교 학생 모두 진로교육을 받기 전보다 진로 정보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배치 교 학생들은 모두 ‘원하는 진로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답한 반면, 비배치 교 학생들은 대체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3. 커리어존 유무에 따른 비교

가. 타교과교사(학교관리자 포함) 면담 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의 변화에 대해 커리어존 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타교과교사 모두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커리어존이 설치된 학교의 타교과교

사는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을 포함하여 자신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동아리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커리어존이 없는 학교의 타교과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알고 시도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커리어존이 미설치된 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진로 상담실이 생긴 이후에 뚜렷한데, 커리어존이 설치된다면 진로교육의 긍정적인 성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맡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로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에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Y교 T₅교장(커리어존 설치 학교 소속)).

이전에는 진학 시기가 다가올 때에만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하였지만, 진로상담실이 생긴 이후 어느 때든 부담 없이 진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옵니다. 진로 상담실에 자료도 많고 진로 선생님이 편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진로 관련 이야기는 진로 선생님께 해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을 받았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진로에 관해 알고 시도하고, 자주 진로상담실에 가는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Z교 T₈교사(커리어존 미설치 학교 소속)).

나. 학생 면담 결과

커리어존이 설치된 학교 학생의 경우 평균 5개의 진로활동을 활동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커리어존이 없는 학교 학생보다 약 2배 정도나 많은 횟수이다. 면담을 통해 커리어존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해 본 진로교육 관련 활동으로는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수강,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이 거의 전부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진로캠프, 직업 체험, 직업인 특강, 상급학교 방문 등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활동을 해보지 않았고, 이 중 특히 직업체험 활동 또는 견학과 진로 교과수업 시수 증가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만큼 학생들이 진로 정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커리어존이 없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 활동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진로 교과 수업,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로 수업시간이 주 1시간인데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직업체험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다(Z교 3학년 S₁₅학생(커리어존 미설치된 학교 소속)).

주로 하는 고민이 장래 희망 관련된 고민, 즉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적성검사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고교 진학 정보를 더 알고 싶습니다(Z교 3학년 S₁₆학생(커리어존 미설치된 학교 소속)).

이에 비해 커리어존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직업체험 및 상급학교 체험 활동도 해보았고, 수학이나 영어 등의 교과 단위 활동도 하였으며, 일반교과 교사들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외국 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장래 희망 직업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커리어존 설치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커리어존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수,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과 함께 논문도 보고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받다가 가고 싶은 대학교,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어서, 계속 찾아보다가 외국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넷을 참고해보기도 했는데, 외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에게 관련 진로 정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Y교 2학년 S₁₄학생 커리어존 설치 학교 소속).

4. 기타 의견

가. 높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하락

학생 면담 중 확고한 진로 결정이 오히려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적은 교과 공부에 관심이 줄어들어 해당 과목의 성적이 하락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개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진로교육과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 교과교육 간의 괴리가 학생 내면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커서 뭘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오히려 진로를 너무 확고하게 정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해야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과목들은 왜 공부 해야 하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Y교 2학년 S₁₄학생(커리어존 설치 학교 소속)).

나.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의 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 활동보다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직업인 특강의 경우 실제 특정 분야의 경력이 오랜 강사를 선별하여 초빙하기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업인 특강을 할 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사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인 특강을 하는 곳을 학교에서 소개해줘서 저학년 때 미리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 볼 기회를 가진다면 진로를 확고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I교 1학년 S₇학생).

어떤 분야의 직업인 특강을 하든지 모든 학생이 무조건 참여할록 하지 말고, 정말 희망자에 한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L교 3학년 S₃학생).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FGI 및 면담 내용 분석과 타교과교사 및 학생 면담의 유형별 분석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시·도 교육청 등급별 분석 및 중점교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이 시행된 이후에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업 가치관과 진로성숙도가 진로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본인의 적성과 흥미 고려)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진로교육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수치화된 자료로써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자기이해도, 생활태도 등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느끼고 있었고, 소수 학생들의 진학 성과가 진로교육성과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들에 비해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진학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또는 모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아직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 분석을 위한 중점교 여부, 커리어존 유무,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에 따른 타교과교사 및 학생²²⁾에 대한 분석 결과 차이점과 공통점이 두루 나타났다.

먼저 중점교와 비중점교를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편이었다. 그리고 중점교의 경우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이 진로정보를 원하면 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문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중점교의 경우에는 상담 위주의 한정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편이었다. 중점교 여부에 따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FGI에서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학생 면담에서 드러난 것은 개별학교의 진로교육성과 기록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진로교육활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타교과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협력 내용에 대해 비배치 교 타교과교사에 비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배치 교 학생들 또한 진로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22) 유형별 분석 대상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면담 내용은 앞의 중점교 여부, 소속교육청 진로교육평가 등급 분류에 따른 분석 내용에 포함하였음.

자신의 장래희망 직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타교과교사 및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이 추론된다. 반면 비배치 교의 학생들은 진로상담을 해본 적이 없었고, 참여해 본 진로교육 활동 종류의 수도학년별로 차이가 큰 편이었다. 배치 교와 비배치 교 타교과교사가 느끼는 공통점으로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자녀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기대가 적고 학업 성적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커리어존이 설치된 학교(이하 설치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미설치된 학교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설치교의 프로그램 수의 절반 수준이 그쳤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공통으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신의 장래희망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였으며, 타교과교사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진로진학상담교사 FGI 및 면담 분석 결과 진로교육 평가 시·도 교육청 등급이나 중점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 분석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두루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진로진학상담교사 FGI 및 면담 분석은 12-14개 교에 대한 분석이므로 분류별로 그 차이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 타교과교사 및 학생 면담의 분석은 2개 교에 대한 일대일 분석이기 때문에 보다 차이를 명료하게 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진로교육 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진로교육성과 및 학교교육성과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에 대한 결과를 외재

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로는 진로교육관련 인프라 구축, 진로·직업 체험활동, 각종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관련 활동 시행이 있고, 진로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로는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및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 증가, 진로성숙도 향상, 직업가치관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라 자기이해도, 학습태도의 향상이 나타났음을 전반적인 FGI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학업성취도, 적성을 고려한 진학 성과, 일탈행동, 학업중단율, 학부모의 자녀진로교육 관심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렸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강화정책을 통해 진로교육의 외재적 결과와 내재적 결과, 그리고 학교교육의 내재적 결과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제한적으로나마 알려 준다.

그러나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함께 특성화고 취업 강화 정책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이 함께 수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정책이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과도기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과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이 안정되게 정착되고 효과를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의견과 같이,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학교 현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장

논의 및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논의
제2절 제언

제5장 | 논의 및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성과 학교 교육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적 분석의 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 지표 중에서는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가 설치하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에서는 비배치 교에서보다 자기 이해나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활동실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output)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교에서는 내재적 결과(outcom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진로교육성과의 외재적 결과(통합적인 진로교육 운영 실적)가 학교교육성과의 내재적 결과(취업률)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분석에서는 양적 분석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진로교육 강화

정책 이후의 변화를 제한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진로교육 강화정책 이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긍정적인 변화를 뒷받침하는 면담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진로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역시 뒷받침하는 결과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예: 안선영, 2006; 송창용·신동준, 2013)의 결과를 고려할 때,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은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된다.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분석을 위한 자료 관리

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후에도 지속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양적 분석을 실행하였다(진로교육지표조사, 학교알리미 자료, 커리어넷 진로성숙도 검사 자료). 양적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은 활용한 자료에 각각의 약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진로교육지표 조사 자료는 2007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관리됐으나, 할당 예산의 규모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조사 집단의 규모가 확대·축소되거나 조사 대상이 바뀌거나, 특정 해(2010년)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지표 조사 자료의 연도별 비교 분석을 실행할 수 없었다. 또 학교 조사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데 비해, 학생 조사는 총 400여 개 학교(중고등학교는 340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 조사 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학생 조사의 표집이 무작위 추출로 이루어졌고, 표집된 대상이 모두 응답하지는 않았으므로 대표성을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 조사 역시 전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학교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집 방법을 매년 일관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규모의 자료를 지속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알리미 자료는 2008년 이후 매년 지속해서 수집·관리됐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자료 입력 방식이 다르거나(예: 타 학교에서는 수치로 입력한 자료를 특정 학교에서는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 특정 해에는 입력했던 자료를 다른 해에는 입력하지 않는 등 자료의 입력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진로교육지표조사 역시에도 일부 해당하는 사항으로, 질문은 유사하지만, 입력 양식이 다른 문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하는 방식이 일관될 수 있도록 문항의 질문과 응답 방식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지표 자료 보강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자료 및 변수의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조사된 지표들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시행하다 보니 모형으로는 설계하였으나, 그 중 실제로 사용 가능한 변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 2장의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외에도 진로교육 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 효능감 등 다양한 내재적 결과 지표가 있지만, 해당 지표에 대해 조사된 자료가 없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학교교육성과 지표 역시 학습 동기 증진,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내재적 결과와 인권 및 안전교육 등의 외재적 결과 등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진학률과 취업률, 학업중단율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성과지표와 관련된 항목을 보강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조사를 실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지속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 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진로교육지표 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는 서로 분리된 채로 별개의 기관에서 별도의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있

다. 진로교육성과에 대한 자료는 주로 진로교육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교육성과와 환경에 대한 자료는 학교알리미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두 조사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학교명이 공개된 상태의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료의 확보가 지체되고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한 기관에서 함께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여러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특성상 다른 자료와 통합될 수 없는 자료로 인해 분석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 자료를 합치기 위해 학교명이 공개되면서 민감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문제점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성과 지표 중 학업성취도와 학교폭력대응에 대한 자료는 학교알리미에서 조사가 된 자료이지만, 자료의 민감한 특성상 교육부 밖으로 유출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의 조사를 통해 수집하면 자료의 활용과 분석이 쉬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명을 비공개로 처리해도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후속 연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 및 실행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는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이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점검하면 정책의 성과평가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국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책 실행 이전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미리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 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를 실행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 평가를 위한 후속 연구를 실행하여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부족과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실행되어야 했다. 정책 실행 이전의 자료와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는 분석을 제한적으로나마 실행할 수는 있었으나, 활용한 자료가 성과평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이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결과 역시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구인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많은 제한점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 활용될 조사 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후속 연구는 정책 실행 초기의 과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는 정책의 성과

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 3년, 심지어 10년까지로 보고 있다. 3년이라는 기간 역시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3년 이상(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3년) 진로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현재로서는 진로교육 강화정책 중 비교적 빠르게 실행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3년이 지난 뒤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4~5년 이후에 후속 연구가 실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제언

가.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속 연구가 진로교육 정책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살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성과 중 내재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취업률 외에도 진학률과 학업중단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 지표가 현 교육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 정책이 고졸자 취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취업률만큼은 정책의 방향에 걸맞은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진학률을 높이고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것이 현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여 진학률과 학업중단률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나, 정책성과평가로서의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과 지표의 선정이 같은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정책의 실행 이전 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의 설정은 단순히 양적인 수치를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목표를 반영하는 교육성과 평가기준 설정 및 교육맥락의 고려

학교교육성과와 진로교육성과의 평가 기준 역시 정책의 목표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목표를 반영하면서, 양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예: 교육 수혜자의 만족도)도 함께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교육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 평가에 수혜자인 학생의 변화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과의 주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된다.

각 지역과 학교별로 다른 교육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기준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노력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교육의 주체들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²³⁾에 빠져들어 모든 의욕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고 교육환경을 파악하여, 평가할 때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주체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행한 노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믿음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3)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Seligman (1972)의 동물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주변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함을 깨달을 때 느끼게 되는 무기력증.

SUMMARY

**The foundation study of analysing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Seo Yoojeong·Lee Jieun·Kim Suji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areer Education Reinforcement Policy in 2011, the need has been raised for research to examine how career education may influence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However, due to the short period of time that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it is too early to expect to obtain 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the aim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analysing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and to analys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erformances with the existing data set. For that purpose, the report defined ‘performance’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that can be measured in terms of the ‘output’ and ‘outcome’. The report also distinguished the concept of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by limiting their scope. Then, indices that

could be used to represent the two performances were identified and their associations were analysed.

Quant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existing data set(2012 School Career Education Indices, School Information Announcement(2010, 2012) and Careernet Career Maturity Test Data(2009~2012)). Additional qualitative analyses were also conducted based on the FGI and interview of Career Guidance Teachers, other subject teachers and students.

The results provided a limited support to the link between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However, this could be explained as that the Career Education Reinforcement Policy is still at its early stage. Further study is required later when the policy has been fully implemented and settled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policy on the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of the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in turn, on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Addressing the limitation of the study, further sugges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Currently, the data set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are managed separately by separate body. They should be managed together so that the indices for the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could be drawn from the same data set and analysed without facing the difficulties the current study faced. Further data that matches the performance indices should also be

obtained. In the current study, only a limited number of indices could be used in the analysi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education performance and school education performance could not be clearly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erformance indices are in line with the education policy, it was recommended for the policy makers to consider what would be the ultimate aim of the policy they are making and implementing.

참고문헌

- 교육부(2012a). 2011 시·도 진로교육 평가결과 발표. '12.1.5 보도자료.
- _____ (2012b).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한 체험위주 진로교육 강화. '12.1.11 보도자료.
- _____ (2012c). 진로교육정책 설명자료집. 교육부.
- _____ (2013a). 2012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 발표. '13.1.18 보도자료.
- _____ (2013b). 2012년 진로체험에 146만 명 참여, 152억 원 투자, 4,700개 체험처. '13.2.18 보도자료.
- _____ (2013c).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13.2.27 보도자료.
- _____ (2013d). 진로진학상담교사 1,551명 부전공 자격 연수 시작. '13.1.07 보도자료.
- _____ (2013e). 35,000명 교사 진로교육 연수 - 자유학기제 및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여건 조성. '13.2.05 보도자료.
- 김경식·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60집 제4호, 1079~1103쪽.
- 김규효·권현용(2012). 「LCSI를 활용한 진로집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인문학논총』 제28집, 375~398쪽.

- 김미연·이칭찬·한기호·윤봉기·조성근(2012). 「동아리학급 지도를 위한 진로교육기반의 창체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학연구』.
- 김성현(2012).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 김신영(2010). 「학교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 방안」, 교육부.
- 김양현·박은진(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 아동의 진로성숙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 김주후·김주아(2006). 「교육성과를 포함한 책무성 중심 학교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 『교육평가연구』 제19권 제3호, 21~43쪽.
- 김태영·이유진(2012). 「중학생의 영어 학습동기 및 성취도 변화: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 나승일·김기용·정동열·조성웅(2011).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성과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발달』 제43권 제2호, 127~150쪽.
- 남석현·김선효(2012). 「방송 프로를 활용한 기술·가정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일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노정현(2012). 학교평가 길잡이,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
- 류량도(2008). 「성과관리 유형과 경영성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2009). 「뇌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제15권 제2호, 19~36쪽.

- 박행모(2006). 「직업 사전을 활용한 진로지도 교수-학습 활동이 초등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 제21권 제1호, 1~22쪽.
- 손유미·진미석·서유정(2001). 『2011년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사업-창의적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미영·남민우·김창일·강태훈(2011). 『학교 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학업성취 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종단 척도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창용·신동준(2013).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실태와 성과』, KEEP 패널브리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신임선·장운옥(2012). 「커리어포트폴리오형 및 교사주도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제24권 제1호 통권 제63호, 85~104쪽.
- 안선영(2006). 「미국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 제3권 제1호, 69~85쪽.
-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 오호영·김민숙·서유정·김나라·홍성민(2012). 『2012 학교진로교육 지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소민·강진령(2013). 「감정 기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 윤형한·이지연·김나라(2005).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형한 · 김승보 · 조희경 · 권민정 · 김성희 · 김인형 외(2012). 진로교육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로교육정책 설명자료집.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희정(2013).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교과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243~262쪽.
- 이상준 · 정운경 · 김규상(2008). 『진로정보센터 운영(2008)-진로교육 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준 · 정운경(2009). 『진로정보센터 운영(2009)-진로교육 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미 · 김행자(2005). 「기술가정 9학년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 단원에서 학생활동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6권 제4호 통권 제34호, 9~26쪽.
- 이영호(2002).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1호, 135~171쪽.
- 이윤식(2007).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1~30쪽, 301~302쪽.
- 이정금(2009). 「농업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직업가치관이 진로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 이지연(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 이지혜 · 이인희(2010). 「교사의 업무분담, 직무만족, 조직몰입, 교사 전문성과 학교교육 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 이현림 · 손종하 · 김성자 · 김순미(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 미치는 효과」, 『한국직업교육학회』 제26권 제1호, 43~56쪽.
- 이현숙(2011). 『개별 학생의 학업성장과 학교교육 성과 분석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혜숙·김유미(2009). 「PBL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초등상담연구』.
- 임언·서유정·최수정·김인형(2012).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정운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양정호(2005). 「다층 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임현정·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제62호, 261~281쪽.
- 장원경·김태균(2005). (한국 SPSS 12.0)을 이용한 자료분석의 이해와 응용. 대경.
- 정운경·김나라·서유정·조희경(2012). 『초·중등단계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과 진로교육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제영·신인수·이희수(2009).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241~260쪽.
- 정철영·박동열·김진화·채연희·김재호·조단비(2006).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제3호, 251~277쪽.
- 정택희(2008). 『한국의 교육지수 개발 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

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조성심·주석진(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진미석·이현경·서유정(2011). 『학교급별 진로교육목표 체계화 및 성과지표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혜영·정혜영(2006).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가정 연계 초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한국진로교육학회(2011). 선진패러다임을 위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현이경(2012). 『강점기반교육이 저성취아의 학습몰입, 성취동기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원(2010).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의 타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Fereday, J. & Muir-Cochrane, E.(2006). Demonstrating rigor using thematic analysis: A hybrid approach of inductive and deductive coding and them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from <http://www.ualberta.ca/>

Fitz-Gibbon, C.T.(1996). Monitoring Education: Indicators, Quality and Effectiveness. London, New York: Cassell.

- Porter, A.(1991). Creating a system of school process indicato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 Seligman, M. E. P.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 pp.407~412.
- Super, D. E.(1957).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Brothers.
- Williams, J. D.(1992). Monitoring school performance: A guide for educators. London: Falmer Press.

부 록

1.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교육성과 분석
2. 진로교육성과 시계열 분석(부표)
3. 면담지: 진로진학상담교사, 타교과교사,
학생
4. 기타 질적 분석

〈부록 1〉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교육성과 분석

제3장 제2절에서 진로교육 강화정책과 학교교육성과를 분석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실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가독성을 위하여 유의한 변수 및 중요 변수만 제시한다.

1. 조정계수를 이용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조정계수(adjusted score)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부록으로만 제시한다.

가. 조정계수 구하는 법

조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수들을 독립(independent)변수로 하여 회귀분석(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시행한다.

둘째, 회귀분석 후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온 회귀분석의 계수(coefficient)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구한다.

$$y = a_1x_1 + a_2x_2 + \dots + a_nx_n$$

여기서 a_1, a_2, \dots, a_n 은 모두 유의미한 변수의 계수이다.

나. 분석 결과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절편을 제외하고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부표 1-1〉 중학교 조정계수 다변량 분산분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여부	.999	1.270b	2.000	3050.000	.281
진로와직업채택여부	.999	1.195b	2.000	3050.000	.303
별도의 공간여부	.998	3.538b	2.000	3050.000	.029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여부	.999	.832b	2.000	3050.000	.435

주: 1) b는 정확한 통계량을 의미함
2) 유의수준은 0.05를 사용하여 계산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변량 분산분석한 결과 상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활동실 설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 진로활동 여부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2〉 일반계 고등학교 조정계수 다변량 분산분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여부 더미	.984	13.322b	2.000	1611.000	.000
진로와직업채택 여부 더미	.999	.751b	2.000	1611.000	.472
진로활동실 여부 더미	.988	9.520b	2.000	1611.000	.000
창의적 체험활동중 진로활동 여부더미	.998	1.214b	2.000	1611.000	.297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여부 *창의적 체험활동중 진로활동여부더미	.992	6.534b	2.000	1611.000	.001

주: 1) b는 정확한 통계량을 의미함
2) 유의수준은 0.05를 사용하여 계산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절편을 제외하고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부표 1-3〉 전문계 고등학교 조정계수 다변량 분산분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여부더미	.993	1.900b	2.000	542.000	.151
진로와직업채택여부 더미	.995	1.420b	2.000	542.000	.243
진로활동실여부더미	.999	.240b	2.000	542.000	.787
창의적 체험활동중진로활동 여부더미	.998	.550b	2.000	542.000	.578

주: 1) b는 정확한 통계량을 의미함
2) 유의수준은 0.05를 사용하여 계산

〈부록 2〉 진로교육성과 시계열 분석(부표)

제3장 제3절에서는 직업성숙도 검사 결과 자료(2009~2012년)를 이용하여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 시계열 분석을 시행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부록 2>는 그에 관한 부표이다.

〈부표 2-1〉 중학교 진로성숙도 검사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독립성	정보활용 및 의사결정	하는일	임금/ 근무환경	능력과 환경	선호직업 지식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
2009	50.6	48.6	58.9	43.6	51.3	54.0	50.4	50.9	53.0	42.2
2010	52.9	49.2	60.0	44.0	51.9	54.7	51.2	51.5	53.7	45.5
2011	48.8	47.2	58.9	42.9	51.0	53.4	50.8	51.1	53.1	43.9
2012	48.8	47.2	58.9	43.0	51.2	54.0	51.4	51.4	52.6	40.9

자료: 진로성숙도 검사(2009~2012년)

〈부표 2-2〉 고등학교 진로성숙도 검사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독립성	정보활용 및 의사결정	하는일	임금/ 근무환경	능력과 환경	선호직업 지식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
2009	52.3	51.3	59.7	44.1	51.9	54.8	49.7	50.1	52.2	44.2
2010	53.0	51.2	61.1	45.4	52.4	54.8	50.1	50.6	53.2	47.9
2011	53.5	52.9	62.1	45.9	52.8	54.8	50.0	50.4	53.3	46.0
2012	53.5	52.9	62.1	44.7	52.0	54.5	50.7	51.0	52.8	41.2

자료: 진로성숙도 검사(2009~2012년)

〈부록 3〉 면담지: 진로진학상담교사, 타교과교사, 학생

0	0	0
---	---	---

진로진학상담교사 면담지

○ 면담 일시 : 년 월 일 : - :

○ 면담 장소 :

면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 • 은행 계좌번호 : • 주민번호 : ※ 면담시례비 지급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교/교육지원청 : • 보직 여부 및 보직명 : • 경 력(근속년수 또는 교직년수) : • 현 소속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근무한 기간: 	

연구진	성 명 :
-----	-------

1. 면담교사 확인사항

- 1.1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기 전에 담당했던 전공교과

- 1.2 정식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기 이전 진로업무의 경력 및 담당했던 업무내용

- 1.3 진로진학상담교사 지원 동기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발령 시기

- 1.4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

- 1.5 보직 발령을 받은 경우 직분/역할 내용 및 범위

- 1.6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예: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서는 학교 진로교육 총괄,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학 상담, 취업 촉진 지원 등)

- 1.7 위의 1.6번에서 제시된 분야의 직무 외에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직무

1.8 진로교육과 무관한 업무 내용과 그 비중 (예: 일반교과 시험준비·채점업무 등)

1.9 일반교과교사로의 전환 가능여부, 가능할 경우 전환 희망 여부

2. 학교 및 학생 환경의 특성 (*사전조사 요청항목: 문항1-3)

2.1. 소속학교 규모 (학생 수, 교사 수) 및 지역적 특성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산간지역)

2.2 교육복지대상학생 수/비율

2.3 귀하의 소속학교가 특성화고인 경우, '기초직업역량, 진학률, 취업률의 최근 3개년도 자료'

2.4 학교주변의 진로교육 관련 시설/기관의 유무 (있음/없음/모름)

2.5 학교주변의 진로교육 관련 시설이 있다면, 활용한 시설의 목록과 방법 이를 귀하가 진로교육에 활용해 온 방법 (예: 진로체험, 관계자 초청 강연 등)

148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2.6 학교장/교감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 (예: 예산 편성, 진로교육 시수 확보 등)

2.7 업무 수행 시, 동료 교사로부터 받는 협조의 내용

2.8 학교의 진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동료교사의 협조 사항

2.9 학교 행정실의 지원 정도 (예: 진로교육 관련 물품 구매 행정 처리를 행정실에서 지원하는지 진로교사가 직접 하는 지 등)

2.10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필요한 행정실의 지원 사항

2.11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하는 방법 (예: 진로교육을 배우는 입장에서 강의 청취 또는 진로캠프 등 참여, 직업인 입장에서 진로관련 강의 제공, 자녀진로지도 지원 등)

3.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전과 이후 비교 (*사전조사 요청항목: 전체 문항)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이전부터 소속학교에 재직 중이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사전에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 귀하가 배치된 이후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 내용 (개선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 모두 포함)

3.2 학교장/교감의 지원의 변화 (지원하는 내용 및 정도의 변화)

3.3 진로교사 배치 전후로 진로교육 예산의 조달방법 변화 (예: 시도교육청 예산, 학교 자체 예산, 각 예산의 비중)

3.4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의 지원 분야 (예: 커리어존 설치, 직업체협)

3.5 학교자체예산을 활용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분야 (예: 강사 초청, 체험캠프, 학습자료 구입 등)

3.6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후 예산액의 증감 정도 (학교예산 내에 편성되었다면, 학교운영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50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3.7 학교내의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자원의 변화 (예: 커리어존 설치, 진로교육관련 자료 배치증가 등)

3.8 교내 진로교육 담당부서 설치여부의 변화 및 인력이 기존에 비해 증감한 정도

3.9 학생들의 진로 개발 탐색을 위한 투자시간 및 비용 증감 변화 (예: 정보탐색, 방과후학교·동아리 참여 등)

3.10 학생들의 진로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변화

3.11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진로교사 배치 이후에 달라진 정도 표기

	① 전혀 달라지지 않음	② 별로 달라지지 않음	③ 보통	④ 많이 달라짐	⑤ 매우 달라짐
• 학교장과 교감, 다른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					
•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 학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관심도					

3.12 앞의 3.11번에서

- ①②③을 선택한 경우(별로 달라진 점이 없음) 그 이유

- ④⑤를 선택한 경우 (많이 달라짐), 그 이유

4. 2012년도 진로교육 운영 성과 (*사전조사 요청항목: 문항1-6)

4.1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예산, 프로그램 종류와 그 운영횟수 (프로그램
예: 직업체험, 진로와 직업교과, 학부모 강연, 직업인 강연, 진로캠프, 창업교육,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활동 등)

4.2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학부모의 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3 진로상담 횟수

4.4 진로교육 전후의 학생들의 진로 관심도의 변화

152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4.5 진로교육 전후의 학생의 변화 자료 (학생의 직업가치관 변화, 진로역량 향상 등)

- 진로교육 후 진로(장래직업 또는 진학 학교 선택)를 결정한 학생 수 증가여부
- 진로교육 후 직업가치관의 변화 (예: 성취, 봉사, 안정성, 금전적 보상, 인정, 몸과 마음의 여유, 지식추구, 자율, 영향력 발휘, 등)

4.6 (우수 진로 교육선발대회 참여한 경우) 진로교육 보고서

4.7 기타 관련 자료

- 진로상담을 실행하는 빈도 및 시간 (주당 횟수, 1회당 시간)
- 진로상담을 받는 학생의 특성
- 진로교육과 관련 있는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여부

5. 2012년도 학교교육 성과 (*사전조사 요청항목: 문항1)

5.1 진로교육이 학교교육 성과에 미친 영향

- 학업 : 학생들의 학업의욕 및 학업성취도(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직업기초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자기이해 : 학생자신의 특성 및 적성 파악 정도 변화
- 생활태도 : 학교생활적응, 수업의 충실도 향상, 일탈행동 감소(비행청소년 감소, 흡연을 감소, 학교 폭력 및 따돌림 감소 등)

5.2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기간

6. 애로사항 및 요구

- ### 6.1 위에서 진로교육의 성과가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성과(예: 학업, 자기이해, 생활태도 등)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

154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6.2 진로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7. 정책제안

7.1 현재의 진로교육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2 교과부의 정책 중 직무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내용과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내용 (아래 표 참고)

번호	〈표〉 교과부의 주요 진로교육 정책 예시
1	창의적 체험활동
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3	커리어존 설치
4	진로체험
5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및 확대 (고교→중학교→초교)
6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및 심화연수

7.3 현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증액 정도와 그 활용용도

7.4 예산 증액 이외에 원하는 진로교육 정책 (예: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배치 등)

타교과선생님용

진로교육에 대한 면담조사

○ 면담 일시 : 년 월 일 : - :

○ 면담 장소 :

면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 • 은행 계좌번호: • 주민번호 : * 면담사레비 지급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학교/교육지원청 : • 경 력(총교직년수/현재 직위경력) : • 현 소속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연구진	성 명 :
-----	-------

1. 2011년부터 교육부의 진로교육 강화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의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었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세요)

- 진로교육내용 및 질

- 학생의 변화 (수업태도, 성적, 이탈행동 등)

- 학부모의 변화

- 기타 변화

2.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필요 정도

①전혀 필요 없음 ②별로 필요 없음 ③보통 ④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2-1. 그 이유는?

3.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수에 대한 의견 (진로교사 1인당 적절한 학생수)

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 현재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진로진학상담 역량과 만족도에 대한 의견

5.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업무 협력 내용/교과통합 진로교육 실행여부

6.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

7. 학교 현장 진로교육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예산,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등)
 - 교육부의 지원, 교육청의 지원

 - 학교장/교감과 기타 교사들의 지원

학생용

학생에 대한 조사

- 면담 일시 : 년 월 일 : - :
○ 면담 장소 :

면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ail :•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 <p>※ 면담사례비 지급시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교 :• 학년(진로교사 배치 전 재학여부) :• 교고생인 경우 중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 참여 여부 :	

연구진	성 명 :
-----	-------

4. 귀하는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 ①전혀 안함 ②별로 안함 ③보통 ④많이 고민하는 편임 ⑤매우 많이 고민함

5. 귀하는 진로진학상담 선생님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도움이 안 됨 ②별로 도움 안 됨 ③보통 ④약간 도움이 됨 ⑤매우 도움이 됨

6.1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변한 점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매우	
	아니다		그렇다	
1 원하는 진로분야를 선택했다.				
2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됐다.				
3 적극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게 됐다.				
4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5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다.				
6 원하는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7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되었다.				
8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9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10 성적이 향상됐다.				

6.2 위에 나열된 사항 외에 다른 변화를 겪은 부분이나, 느낀 점들이 있습니까?

7. 학교의 진로교육(또는 진로진학상담 선생님께서)이 제공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업체험을 ~일 이상 하고 싶다. 내가 진학을 원하는 학교/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다 등)

〈부록 4〉 기타 질적 분석

〈부표 4-1〉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개선 사항	면담 내용
<p>기타 업무(생활상담, 학교 행사)와 진로교육 업무의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지역 대부분 학교가 전문상담교사와 진로교사가 함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상담 업무를 두고 일반 교사들과 서로 충돌이 많습니다. 동료교사들이 진로체험 같은 진로 업무는 협조해주지만, 생활상담은 진로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R교 CT₁₇교사(비중점교)). - 진로교사의 업무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계속 잡무를 부과하다보니 진로교사 역할과 무관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도 진로교사에게 학교 행사일 등을 갑자기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진로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K교 CT₁₀교사(중위권 교육청)).
<p>협조 요청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공문 및 지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교사의 협조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전 직원에게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여 진로교사 직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교육청차원에서 공문발송 협조도 필요합니다(N교 CT₁₃교사(중점교)). - 사립학교의 오래된 관행으로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표준교육비 중 일정한 비율을 진로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같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필요합니다(N교 CT₁₃교사(하위권 교육청)).
<p>진로교사에 대한 인식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모든 학교 행사에 ‘진로’가 빠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 행사 지원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진로교사 업무로 인정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인식 변화를 보고 진로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지 학교 관리자들이 인정해주는 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간혹 학부모들이 알아주고 고맙다는 전화하기도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이런 면이 답답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이럴 땐 진로교사로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D교 CT₄교사(비중점교)). - 진로교사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로교사가 주당 10시간 시수만 수업한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근무하기 위해 진로교사를 지망했다고 오해하는 교사들도 있고 수업시수가

개선 사항	면담 내용
	<p>적다는 이유로 다른 파트의 교육도 담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로교사들은 업무량 과중으로 9, 10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C교 CT₃교사(중점교)).</p>
<p>진로교육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관심 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작년에 처음 진로활동을 할 때, 교장선생님도 진로활동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라며 걱정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우리 학교가 해보면 어떨까’란 얘기를 먼저 꺼내실 정도로 진로교육에 관한 욕심과 관심이 생기셨습니다(I교 CT₉교사(중위권 교육청)). - 저희는 마이스터고등학교라 진로교육의 목표가 취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23명이 OO기업에 서류 합격해서 직무적성검사를 보는데, 이 시험 준비를 위한 강사 섭외하는 비용이 3시간에 200만원이라 좀 부담스러운 편이었는데도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승낙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 진로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G교 CT₇교사(중위권 교육청)). - 교장 선생님께서 승인하시면 행정실은 무조건 협조해주기 때문에 동문특강 지원, 물품 구입지원, 차량 지원 등에 협조적입니다(B교 CT₂교사(상위권 교육청)).
<p>학교규모에 따른 배치 수 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 300~500명 이상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가 필요합니다. 1,000명 이상의 학생을 한 명의 진로교사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며, 건강에도 문제가 나타나 명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P교 CT₁₄교사(중점교)). - 학교 규모에 따른 차등 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 공문을 보면 ‘진로’란 말이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전년도보다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지만, 진로교사 한 개인으로서의 힘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진로’가 들어가면 안 할 수도 없습니다(H교 CT₈교사(중점교)).
<p>지역별 진로교사 배치 비율 편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진로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지만 각종 진로관련 사업은 타 시·도와 동등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진로교사는 1인이 참여해야 할 사업 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립학교에 있는 진로교사들은 협조를 요청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장도 잦고, 관리자나 동료 교사로부터 쓴 소리도 들으며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V교 CT₁₇교사(하위권 교육청)).

□ 저자 약력

- 서유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지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김수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 발행연월일 2013년 10월 29일 인쇄
 2013년 10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박 영 범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450-1 93370
- 인 쇄 처 (주)범신사 (02)720-9786